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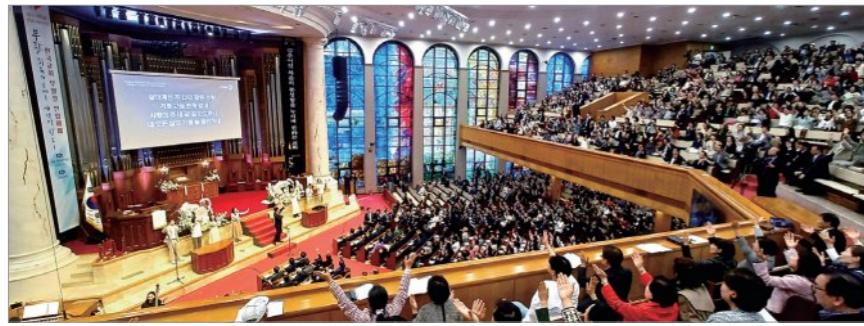
2025 한국교회 '10대 뉴스'... 선교 140주년·AI와 목회 등

'기독일보'가 돌아본 2025년 한국교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약 1년 동안에도 한국교회에는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크고 작은 뉴스들이 있었다. 기독일보는 올해를 정리하며 '2025 기독교 10대 뉴스'를 선정해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기독일보 편집부

1.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



2025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념 행사 모습. ©기독일보 DB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올해 한국교회에선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1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로 드려졌으며, 선교사들이 처음 밟았던 인천 제물포에서는 기념 퍼레이드와 문화 공연이 열렸다. 이밖에도 기념 학술제 및 포럼 등 지난 140년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2. 올해도 부결된 '목회자 정년 연장'



2025년 9월 예장 합동 제110회 총회가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목회자 정년 연장 문제는 수년간 교단 정기총회 '뜨거운 감자'였다. 예장 합동은 올해도 연장안을 부결하고 '만 70세'를 유지했다. "후배 목회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을 실렸다. 예장 백석은 이 문제를 다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3. 시국 관련 '국가비상기도회' 및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일어난 정치적 금번 사태는 교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며, 이는 찬반 집회로

까지 이어졌다. 대표적 탄핵 반대 집회였던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지금은 구속된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가 주도했다. 현법재판소는 결국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찬반 집회로

결정했으며, 얼마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들어선 특검은 이영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한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현장. ©뉴시스

4. 기하성-예장 백석 통합 논의

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예장 백석(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 간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며 교계에 큰 관심을 모았다. 각각 웨슬리와 칼빈의 신학 전통 위에 있는 두 교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슈였다. 다만 기하성은 최근 "우리 교단과 백석 교단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보이면서, "선교적 교류를 위한 선교연합체는 통합이든 백



과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의 이영훈 목사(오른쪽)와 장종현 목사 ©기독일보 DB

석 교단과의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했다.

5. 교회와 목회 속으로 깊이 들어온 AI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교회와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AI는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도구이자 신학적 성찰의 대상으로 깊이 자리 잡았다. 일부 교단에선 AI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장 큰 논쟁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AI'를 설교 작성에 과연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자료 수집과 예화 검색 등에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부터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신앙의 본질



AI 관련 기독교 서적들. ©최승연 기자

을 훑을 수 있다는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6. 세상 떠나 하나님 품으로

원로 목회자와 교계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다. 김준곤 목사의 부인인 전효심 사모, JAMA 설립자인 김준근 박사, 아신대 선교대학원 소운정 교수,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원로목사, 미국의 대표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맥아더 목사, 신경하 전 감독회장, 김삼봉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새중앙교회 박중식 원로



故 박중식 원로목사 영정 사진. ©새중앙교회

목사 등이 별세했다.



지구촌교회 제4대 담임인 김우준 목사(왼쪽)와 사랑의교회 제3대 담임으로 청빙된 윤대혁 목사(오른쪽) ©기독일보 DB

공동의회 등의 위임 절차를 거쳐 이 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 여러 대형교회들이 차기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다.

7. 대형교회 리더십 교체

지구촌교회가 지난 4월 김우준 목사를 제4대 담임으로 청빙했다. 당시 교회 사무총회에서 성도 97.6%가 그를 담임으로 청빙하는 것에 찬성했다. 김 목사는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가 목회철학이라고 밝혔다. 지구촌교회는 "김 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노력을하겠다고 했다. 사랑의교회도 사랑의빛선교 교회 윤대혁 목사(51)를 제3대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최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윤 목사는 추후 제직회,

8. 성평등가족부 출범



'성평등가족부 반대 국민대회' 참석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일보 DB

정부가 기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하자, 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핵심 주장은 부처 명칭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남녀 이외 제3의 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생물학적 성(Sex)'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가족부 신설이 결국 국회에서 막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행하려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 만 성평등가족부는 끝내 출범했다.

9.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축소 논란

교육부가 지난 8월, 2008년 이후 변화된 대학 현황을 반영한다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명단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교계 반발을 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21개 지정 법인을 11개(대학 6곳, 대학원대학 5곳)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었다. 종신대, 장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기존 명단에서 대거 제외돼 파장이 커졌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주요 교단은 즉각 성명을 발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계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는 결국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장신대, 서울신대, 침신대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교들이 기존 명단에서 대거 제외돼 파장이 커졌다. 이에 한국교회 총연합과 주요 교단은 즉각 성명을 발표,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계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는 결국 해당 개정안을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0.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교회 피해 및 구호

지난 3월 경북 의성과 안동, 영덕을 비롯해 경남 산청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남겼다. 해당 지역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당과 목회자의 사택이 불에 타는 등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아픔의 현장에서

교회의 사랑 실천도 빛을 발했다. 구세군과 한국교회봉사단 등은 이재민과 소방원들에게 매일 수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벌였다.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구호기금 모금도 진행됐다.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신앙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

초교파 교육기관 넥스트교회교육원, 교사교육 교재 발표

교회 규모·교사 경력 상관없는 '기본이자 표준' 교재

교단 넘어 공동 집필로 어느 교회든 적용 가능

단발성 교육 넘어 장기적 교사 성장을 목표로

"신앙을 전하고 삶으로 가르친다면, 우리는 모두 교사"



교사란 누구일까. 신앙을 전하고 삶으로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사실 우리는 모두 교사나 다름없다. 초교파 교회교육 기관에서 '교사'를 위한 교육 교재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를 평했다.

넥스트교회교육원(대표 김대욱)은 최근 서울 오픈교회 본관 5층 애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재 기획 배경과 내용, 교회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교육원은 오랜 교사교육 사역 경험을 토대로, 교회의 교사 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돋는 장기 교육 교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욱 대표를 비롯해 공동 집필진 가운데 김성중 교수(장신대), 이재영 교수(실천신대), 정석원 목사

(오늘의교회)가 발표자로 나서 교재의 특징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교회 규모나 교사의 연차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이자 표준'이 되는 교재라고 입을 모았다.

김대욱 대표는 "교사교육을 오래 해오며 느낀 것은, 좋은 교재 없이는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며 "교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고민하다가, 교사 한 사람을 눈앞에 두고 직접 가르치는 방식에 가장 가까운 교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총 14권에 이르는 『넥스트 교사교육 시리즈』 중 첫 번째 교재이기도 하다.

김성중 교수는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어느 교회든 적용 가능한 전문



넥스트교회교육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교육 교재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입니다」를 소개했다. ©백선영 기자

경과 교리 등을 다루며, 사역 연구 코스는 구체적인 교수법, 부서별 사역 전략, 상담을 다룬다.

이재영 교수는 "이 책의 강점은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점"이라며, "신입 교사부터 경력 교사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교사가 무엇인지, 왜 교사를 하는지부터 짚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다"며 "짧지만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알차게

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회 규모별 활용 방안과 교사 번아웃 대응, 향후 발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성중 교수는 "교사 번아웃의 근본적인 회복은 소명의 회복"이라며 "왜 교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불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넥스트교회교육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나머지 교재들을 발간해 교사교육 커리큘럼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교회교육원은 '작은 교회의 교육을 듣습니다'란 슬로건으로 2020년 설립,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회 전문 교육을 기획, 개발하여 사역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한해 3,500~4,000명 가량을 교육하고 있다.

고문 및 자문은 김성중 교수(장신대), 흥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흥승영 목사(장지교회), 조영민 목사(나눔교회), 이종민 교수(총신대), 양성진 교수(감신대), 신승범 교수(서울신대) 등이며, 대표강사는 이재영 교수(실천신대), 김민철 목사(언덕교회), 정석원 목사(오늘의교회), 유지혜 전도사(한성교회) 등이 있다. 백선영 기자

교회언론회, 광주교육청의 기독 대안학교 등록취소 검토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논평을 통해 광주광역시 소재 기독교 대안학교인 '겨자씨크리스찬스쿨'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광주교육청 대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회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이 학교를 '극우학교', '편향적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는 최근 겨자씨크리스찬스쿨에 대한 등록취소 의견을 냈고, 교육청은 학교 측 입장을 듣는 정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겨자씨크리스찬스쿨은 2016년 5월 개교해 현재 학생 수 400여 명 규모로, 광주 지역에서 가장 큰 대안학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언론회에 따르면 이 학교는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설립됐으며, '영성',



겨자씨크리스찬스쿨 전경 ©겨자씨크리스찬스쿨

영성 시청과 전시관 방문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강조되는 반면 교권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교육여론조사'를 인용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1%였다고 밝혔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발표를 들어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1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양해야 하며,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 환경 속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며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이념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압박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겨자씨크리스찬스쿨 사안이 "획일적 기준이 아닌 교육 다양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다일공동체, 동대문구와의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최일도 목사 "NGO·복지기관들에게 용기·희망 되길"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가 서울 동대문구와의 법정 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이날 '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가 건물을 무

단 증축했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고 다일 공동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 2억8천여 만원을 부과했지만, 항소심에서 그 정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일공동체는 "건물 증축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를 했고 동대문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이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은 밥과만을 위한 승소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NGO와 복지기관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과 법의 잣대 앞에서 가장 약한 현장이 가장 먼저, 크게 상처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배사역자연합, '2026 원데이 워십 컨퍼런스' 개최

예배사역자연합(이하 예사연)이 2026년을 준비하며 예배팀의 재정비와 재헌신을 위한 '2026 원데이 워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사연 멤버십 교회들이 지역별로 연합해 예배팀을 함께 세워가는 자리로 단발성 집회가 아닌 예배팀 리빌딩(Re-Building)에 초점을 맞췄다.

예사연 측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예배팀이 영적 사역적으로 다시 정렬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들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사연은 예배를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나 이벤트가 아닌 전문적 사역 영역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사연 리더 백나웅 선교사는 "감동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본질"이라며 "이에 목숨을 거는 예배팀이 영적 사역적으로 다시 정렬

컨퍼런스는 2026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월 31일 오후 1시 30분에는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동탄드림교회에서, 2월 7일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 지역 예배팀들이 가리봉교회에 모인다.

이번 집회에는 김명선 목사(오픈교회), 최영천 목사(온리교회), 백나웅 선교사와 예사연 연합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섬길 예정이다. 백선영 기자

2026 군포제일교회 표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40+7
1978-2025
www.gunpojaeil.org

베들레헴예배당
(복지센터)

2026 군포제일교회 표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예루살렘예배당
(비전센터)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베들레헴예배당(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02

예루살렘예배당(비전센터)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2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어미의 마음으로 복지합니다



성민원

군포제일교회가 살립한 복지전문기관

한기총 “낮아짐으로 오신 사랑, 삶으로 실천해야”

2025년 성탄절 메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사진>), 이하 한기총은 최근 2025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성탄의 의미를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시하며 한국교회와 사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암마누엘이



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아리”(마 1:23)는 말씀을 인용하며, “거룩한 성탄을 맞아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와 나아가 온 세계에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과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시지에서 한기총은 성탄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낮아짐의 실천이었고, 사랑의 회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밝혔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한기총은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랑은 말로만 존재할 수 없고,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병든 자를 만지시고 소외된 자와 함께하시며 굶

주린 무리를 먹이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수께서 제자들의 밭을 씻기신 사건을 언급하며 “성탄의 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총은 “종과 같이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이의 모습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도전을 준다”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셨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셨다”고 밝혔다. 이는 “제자의 길이며 믿음의 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한기총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탄의 메시지를 대비시키며, “세상은 높아지

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지만, 성탄의 주님은 낮아짐의 길을 통해 구원을 여시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실질적인 사랑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말의 권위는 직분이나 자리에 있지 않고 삶의 진실함에 있다”며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고, 삶

길을 통해 존귀하게 된다”며 “성탄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삶 속에 다시 새기게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기총은 “이제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며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이 시대를 밝히는 성탄의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낮아지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이 땅에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김진영 기자

세기총 “성탄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길”

2025년 성탄절 메시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사진>), 이하 세기총은 최근 2025년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하고,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것을 호소했다.

세기총은 메시지에서 성탄절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기쁨의 날”이

라고 규정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기쁜 성탄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성탄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신 사건이며,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이 주어진 날”이라고 강조하고, 이 거룩한 의미가 “세계 각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700만 한국인들과 북한 동포와 모든 이웃에게 살아 있는 현실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세기총은 오늘날의 세계 상황을 언급하며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불안과 분열, 종오와 폭력으로 삼치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 벼락받은 자를 품으신 구주로 오셨다”며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사건이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화해와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듣는 날”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기총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강조했다.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히며, “분열 대신 화해

를, 혐오 대신 용납을, 무관심 대신 연대를, 절망 대신 소망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세기총은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시대에 교회가 먼저 화해와 연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교회는 진영의 논리에 갇히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탄은 “화해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촉구하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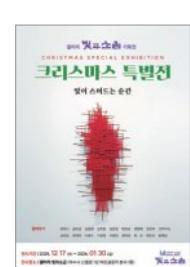
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기총은 “한반도의 평화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영적 과제”라며 “전 세계 한국교회가 연합해 한반도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성탄의 실천적 과제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나눔과 연대를 제시했다. 세기총은 “성탄의 기쁨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향해야 한다”며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소외된 이웃과 난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성탄의 기쁨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다음 세대를 향해 “정죄가 아니라 이해와 동행을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과 문화, 선교의 영역에서 신앙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기총은 “성탄의 소망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며 “가정과 사회에서, 이웃과 선교지에서,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증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 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700만 한인과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한다”며 “성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며 분열된 인류 가운데 새로운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여수 갤러리 ‘빛과소금’, 개관 2주년 맞아 크리스마스 특별전

기독 작가 18인 참여
성탄의 빛을 예술로 묵상

여수에 자리한 문화예술 공간 갤러리 ‘빛과소금’이 개관 2주년을 맞아 크리스마스 특별전 <빛이 스며드는 순간>을 연다. 전시는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붙들고 걸어온 갤러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자리이다. 성탄의 의미를 예술로 묵상하는 기획전이다. 회화와

온 기독 작가 18명이 참여해, 각자의 언어로 ‘빛’을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인 ‘빛이 스며드는 순간’은 단번에 어둠을 물어내는 강렬한 빛이 아니라, 일상의 틈과 마음의 깊은 곳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성탄의 빛을 뜻한다. 작품들은 화려한 장식보다 깊은 여운에 초점을 맞추며, 상처와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참여 작가는 금보성, 김동영, 김복동, 변영해, 변진미, 선우미숙, 심유림, 안태이, 이광수, 이영희, 이종한, 정미경, 최은, 최인선, 강리나, 김준영, 방효성, 황혜성 등 총 18명이다. 대부분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시에 함께했던 작가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자리에 뜻을 모았다.

갤러리 빛과소금은 2023년 12월 6일,

㈜마린글로리 조성종 회장이 외조부 고(故) 해사 정회수 목사의 신앙적 유언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품고 개관한 문화예술공간이다. 단순한 전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나누는 문화사역의 장으로 운영돼 왔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12회의 자체 기획전과 11회의 대관 전시를 진행하며 지역 예술인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시 첫날인 18일 저녁 7시에는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이하 여기총) 주관으로 개관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여기총 수석부회장 문상하 목사의 사회로, 여기총 사무총장 한성률 목사의 기도, 여기총 대표회장 박종석 목사의 설교, 여수 은퇴목사회 회장 심재동 목사의 축

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설교에서 박종석 목사는 ‘사랑의 선순환’(요13:3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작가와의 만남과 함께 성탄 음악회가 이어졌다. 음악회에서는 바이올린 이은주, 피아노 김수현이 참여해 ‘몰도바’, ‘하나님의 은혜’,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연주하며, 갤러리 2주년과 성

탄의 의미를 기념했다.

최원 관장은 “빛과소금 갤러리의 진정한 중인과 운영자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공간을 통해 아름답게 이뤄지도록 기도한다”고 인사 말을 전했다.

한편 갤러리 빛과소금은 여수시 신월로에 위치한 마린글로리 본사 1층이다. 현재 은퇴목사회 등 13개 교계 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예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관 내에 있다. 예술과 예배,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열린 신앙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백선영 기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4

기쁨의교회 담임목사 33주년 기념

■ 예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HR예배 오후 8:30

■ 다음세대예배

주일학교예배 오전 9시
중고등부예배 오전 11시 20분
대학부예배(토) 오후 12시
청년부예배 오후 2:30
사랑채플(장애인예배) 오전 9시

■ 방송설교안내

CTS TV : 매주 월요일 오전 7:50 / 생명의 말씀
서울극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영동극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031-713-0691

■ joyfulechurchof.org



감리회, 강화군에 '평화통일기도의집' 준공

김정석 감독회장
"통일의 초석 되길"



'평화통일기도의집' 준공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김정석 감독회장, 기감)가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에 '평화통일기도의집'을 건축하고, 최근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올해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전개해온 기감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과 실향민들이 이 시스로 찾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설립하기로 하고 연초부터 건축을 추진했다.

평화통일기도의집은 240평 대지에 연건평 26평으로서 1층(11.82평)은 회의실과 휴게실이며 2층은 기도실(14.84평)로 꾸몄다.

준공감사예배에는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해 기감 본부 임원들과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감독, △건립추진위원장 김의중 목사(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 △건립추진상임위원장 김영대 목사 △교동지역연합회 대표 김영돈 목사 △건축가 노승진 박사(도시공학)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박재혁 장로 △시공사 대표(주식회사 서강종합건설) △토지 제공자 진홍성 집사와 변정순 권사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통일을 위한 상징적 기도처가 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통일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건립추진위원장인 황규진 감독은 환영사에 "기도의집이 민족의 평화통일과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내빈들의 퇴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축소한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유병용 감독(서울남연회)은 "기도의집'이 비록 작은 건물이지만 감리회 140년의 선교 역사와 민족의 염원을 담아 세운 곳"이라며 "후대에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배에서는 김정석 감독회장이 건립에 헌신한 이들로 △건립추진위원장 황규진 감독 △건립 제안자 김의중 목사(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상임대표) △건립추진상임위원장 김영대 목사 △교동지역연합회 대표 김영돈 목사 △건축가 노승진 박사(도시공학)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 박재혁 장로 △시공사 대표(주식회사 서강종합건설) △토지 제공자 진홍성 집사와 변정순 권사 등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준공예배는 참석자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제창과 김정석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는 내빈들의 퇴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김진영 기자

기침 여사역자연합회 창립... "건강한 교회와 사회 세우는 리더십 다짐"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첫 연합 조직을 출범했다. 기침 여사역자연합회회장 배정숙 목사는 최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내 페트리홀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피영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는 것"이라며 "복음 전도는 실패가 없으며,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빛"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여사역자연합회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정숙 회장은 창립 취지를 설명하며 연합회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함께 세우는 리더십으로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이라며 "여성 목회자들의 연대와 성장을

통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최인수 기침 총회장은 "총회가 사역의 길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연합회는 향후 1년 동안 행복세미나 개최, 지역 챕터 개설, 후원자 발굴, 교단 기관 및 다른 분야와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세미나를 연례화하고 차세대 리더 발굴과 멘토링 연계, 여성 사역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강 문학... "인간의 길만 있고 하나님의 길 없어"

박요한 교수,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한계 지적

기독교학술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한강 문학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제114회 월례학술포럼 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독교학술원 측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10월 한국의 소설가 한강(Han Kang)이 스웨덴 한림원에 의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며 "한강은 한국 작가 가운데 처음으로, 그것도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로 수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셋째로 K-Culture(한류문화)의 일환, 즉 K-문화의 세계화를 이룬 문학적 폐거"라고 했다.

그는 "한강의 문학이 인간 삶과 세계의 비리, 불의 모순, 참혹, 불평등을 문학적으로 고발하면서도 절망과 허무의 저편에 영원한 소망과 구원, 희망과 신뢰의 세계를 추구하는 차원 높은 문학으로 비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강이 삶(고통, 욕망, 갈등, 부조리, 전쟁, 폭력, 참혹, 허무, 죽음)의 현상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지니는 깊은 함축(각성, 정화, 겸허, 성숙, 화해와 사랑, 평화, 용서와 구원, 생명, 영원)의 궁극적 삶의 예술을 노래하는 문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작품은 처음부터 한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의의는 무엇일까

발제를 맡은 박요한 교수(前 대전신대 대학원장)는 '한강문학의 세계관 - 한강 문학의 비판적 성찰: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먼저,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받는 노벨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둘째로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로 수상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셋째로 K-Culture(한류문화)의 일환, 즉 K-문화의 세계화를 이룬 문학적 폐거"라고 했다.

그는 "한강 작가의 국제적 성공과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 논의에서도 범역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핵심 요인"이라며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주요 문학상(특히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과정은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 康成, 1899-1972)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강의 작품은 처음부터 한 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 바



제114회 기독교학술원 월례학술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로 영국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라고 말하고, "데버러 스미스는 20대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강의 「재식주의자」(2007)를 영어로 번역했다.

영어판 *The Vegetarian*을 2015년에 출간했고, 2016년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시인 한강과 '시인 다윗'의 차이

박 교수는 "시인 한강과 '시인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느냐 없는지'의 차이"라며 "둘 다섯으로 거인 골리앗을 땅에 눕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

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김수성이 풍부한 감 잡은 사람', '칠감'(七感, 감격, 감동, 감복, 감사, 감읍, 감탄, 감흥)의 시인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시편의 서시(1편)에는 행복한 사람(의인)과 불행한 사람(악인)이 대조되어 묘사되고 있다"며 "행복과 불행, 의인과 악인(죄인)의 대조는 '하나님의 말씀' 여부에 있음을 역설한다"고 했다.

또한 "다윗의 시편(23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다"며 "그래서 다윗은 술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삼하 6:12-15), 전율을 동반한 축제 같은 행복한 생애를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인 작가 한강은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고, 최고의 영광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친사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어둡고 고독하고 우울하다"며 "왜 그럴까. 다윗이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즉, 길(진리를) 찾은(발견한) 자의 유대카의 감격, 또는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독교 문학 창달 위해 K-기독교 문학자 발굴과 양성 시급"

그는 "작가 한강의 문학에는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으며, 인간의 길만 있고 하나님의 길이 없다"며 "내재는 있어도 초월이 없다. 초월이 없는 문학은 구원과 생명이 결여되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합류되며, 결국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강 작가의 문학적 한계와 인간적 불행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독교 문학 창달을 위해서는 비기독교 작가인 한강의 K-문화를 넘어 문학의 웃을 입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K-기독교 문학자 발굴과 양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곽혜원 교수(경기대 교양학부 초빙교수)가 상처와 자학의 폐미니즘을 넘어서: 상생과 존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창 1:27, 앵 5: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곽 교수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다. '상처의 서사'를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의 서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문학이든, 젠더 담론이든, 사회운동이든 그 방향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세우는 곳을 향해야 한다"며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 여자를 돋게 하셨고, 여자를 통해 남자를 돋게 하셨으며, 함께 하나님 형상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이에 남녀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주신 생명의 깊이를 함께 배우는 동역자"라고 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이제 우리는 상처와 적대의 시대를 지나 상생과 존엄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다. 남성과 여성은 내가 창조한 상생과 존엄의 질서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할 때 우리 사회는 젠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영적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담임목사 이영훈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 2026.1.5 ~ 1.17

열두 광주리 새벽기도회

[주제] 믿음의 영웅들 [설교] 이영훈 목사 [장소]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시간] 새벽 5시 30분(월~금) / 새벽 6시 30분(토)(전 세계 유튜브 생중계)
새벽기도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시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YOIDO FULL GOSPEL CHURCH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5 T.02-6181-9191



영국서 '침묵 기도' 이유로 프로라이프 활동가 또다시 형사 기소

낙태시설 인근 '버퍼존' 적용 첫 사례로, 표현·양심의 자유 논란 확산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영국에서 낙태시설 인근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던 프로라이프(Pro-life) 활동가가 다시 형사 기소됐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당국은 기존 체포가 부당했다는 판결과 보상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영국 웨스트미들랜즈 경찰과 검찰청(CPS)은 프로라이프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를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스프루스는 낙태시설 인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서 있었다는 이유

로 기소됐으며, 오는 1월 29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소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공공질서법 2023' 제9조에 따른 전국 단위 '버퍼존(buffer zone)'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낙태시설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 낙태 서비스 이용, 제공, 알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 조문에는 침묵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찰 지침에 따르면, 침묵 기도 자체는 명백한 외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본-스프루스가 해당 구역에 머물렀다는



프로라이프 운동가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는 영국 내 낙태시설 인근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체포됐다. ©ADF International

점을 문제 삼아 형사 절차를 진행했다.

본-스프루스는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부당한 체포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경찰은 2024년 8월 '부당한 처우와 인권 침해'를 인정하며 1

만3천 파운드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법률 지원 단체인 ADF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본-스프루스는 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내놓은 시점에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몇 시간 뒤 웨스트미들랜즈 경찰로부터 서한을 통해 형사 기소 사실을 전달받았다. 그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스프루스는 생명을 통해 자신이 여러 차례 무협의와 배상을 통해 정당성이 확인됐음에도 다시 기소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침묵 기도나 친생명 신념을 갖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없으며, 사상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국 검찰청은 공공질서법 제9조가 시행된 이후 한 건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답변은 전 내무장관 수엘라 브래번의 원의 질의에 대해 엘리 리브스 법무차관이 16일 의회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했다.

ADF는 이전 침묵 기도 관련 사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공간보호명령(PSPD)에 근거해 처리됐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새롭게 도입된 전국 단위 법률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웨스트미들랜즈 경찰은 그녀가 올해 1월 27일 범인임의 한 낙태시설 인근 공공도로에서 침묵 기도를 했는지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23년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체포됐으나, 해당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기소가 취하됐다.

당시 체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본-스프루스에게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발언과 체포 행위는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승연 기자

니제르서 납치된 미국인 선교사 파일럿, 두 달째 행방 묘연

수도 니아메이에서 피랍된 케빈 라이드트
현지 교계, 구조 지연에 깊은 우려 표명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서아프리카 니제르 수도 니아메이의 고급 주거지역에서 납치된 미국인 선교사 파일럿 케빈 라이드트의 행방이 두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현지 기독교 공동체와 국제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사건 이후 구조와 수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과 긴장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니제르 마리디 교구에서 사역 중인 나이지리아 출신 선교사 아우구스틴 아누치에 신부는 최근 가톨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기해 세력이나 피해자의 소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지역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케빈 라이드트는 미국에 본부를 둔

라이드트의 석방이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니제르 내 외교 환경 변화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으로 인해 구조 작업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상황이다. 특히 니제르 정부와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과거에 활용되던 정보망과 협력 네트워크가 소홀해 구호, 문해 교육, 과부와 고아를 돋는

공편으로 수송하며 다양한 인도적 사역을 지원해 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항공 사역은 식수 확보를 위한 우물 개발, 전쟁 피해 난민 지원, 산림 복구와 토지 재생, 의료 시설 지원, 흉수 피해 구호, 문해 교육, 과부와 고아를 돋는

자립 사업 등으로 이어져 왔다.

현지 교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납치 사건을 넘어, 니제르와 사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인도적 활동가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라이드트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교회와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케빈 라이드트의 모습. ©X/@RepMark HarrisNC

미국 선교 비행기 추락 사고, 공식 보고서 통해 마지막 순간 공개

인도적 지원 비행이 사고로 이어져



이그나이트 더 파이어 미니스트리의 설립자인 알렉산더 월(왼쪽)과 그의 딸 세레나 월(오른쪽)의 생전 모습. ©Ignite the Fire Ministry

기는 지난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200피트 떨어진 상공, 고도 약 350피트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지상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항공기가 구름을 뚫고 급강하하며 연못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고 충격으로 항공기는 심하게 파손됐으며, 비교적 온전하게 회수된 부품은 수작수평 꼬리날개 일부에 불과했다. 날개와 동체, 엔진, 프로펠러 부품 대부분은 파편 상태로 수거돼 추가 조사를 위해 보관 중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은 해당 항공기를 2024년 2월에 구입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내부 인테리어와 항공 전자 장비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사고 이후 이그나이트 더 파이어 미니스트리는 공식 축하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삶과 사역을 기렸다. 단체는 월에 대해 카리브해 전역과 해외를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세우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세레나 월 역시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며 봉사와 섬김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이번 자메이카 구호 비행은 부녀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지막 사명이었다고 전했다.

알렉산더 월은 아내 캔디스와 자녀 제임스(17), 크리스티아나(20)를 남겼으며, 그의 사역을 통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청년과 지도자들이 애도의 뜻을 전하고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비행은 당시 왕복 일정으로 계획됐으며, 현지 교회 관계자들이 사고 당시 오전 9시 13분께 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구호 물자를 실었다. 적재된 물품에는 발전기 1대와 방수

최승연 기자

Chilsung CIDER

큰별로 새롭게
NEW 칠성사이다

비극으로 물들 뻔한 LA 새해전야… FBI, 폭탄 테러 모의 일당 체포

터틀 아일랜드 해방 전선,
극좌 성향의 친팔레스타인·
반정부·반자본주의 조직

미연방정부가 새해 전야를 기점으로 남가주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13일(주일)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로스앤젤레스 동쪽 도시 루서른 벨리(Lucerne Valley)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계획된 폭탄 테러에 앞서 시체 폭발물(IED)을 시험 제작·점검하며 했던 혐의를 지닌다. FBI는 테러범들이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여러 장소에 배낭 폭탄 형태로 제작된 시체 폭발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터틀 아일랜드 해방 전선(Turtle Island Liberation Front)'이라는 극좌 성향의 친팔레스타인·반정부·반자본주의 조직 소속이다. 터틀 아일랜드는 거대한 거북이의 등에 이 땅덩어리가 형성되었다는 다양한 원주민 창조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탈식민주의 맥락에서 사용된다.

해당 단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TILF가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거나 세상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했다고 게시되었다. 이들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며,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을 공모 혐의와 파괴 장치 소지 혐의 포함 여러 혐의로 고소했다. 용의자들은 새해 전야부터 새해 벼루에 기업 물류 시설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차량을 대상으로 연쇄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웠다.

수사국은, 용의자 4명이 캘리포니아 사막 도시 트웬티나인 팸스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에이살리 검사는 용의자는 모두 로스앤젤레스 지역 출신이며, 용의자 중 한 명은 새해 전야에 남가주 전역의 최소 5곳 이상을 폭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계획에는 사제 폭발물을 제작하는 단계별 지침이 포함돼 있었고, 오

렌지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여러 표적이 열려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 문서에 첨부된 증거 사진에는 사막 야영지 모습이 담겨 있으며, 수사 당국은 플라스틱 접이식 테이블 위에 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용의자들은 다양한 크기의 PVC 파이프, 질산칼륨으로 추정되는 물질, 속과 속 가루, 활 가루, 도화선으로 사용될 재료 등 폭탄 제작 부품을 모두 애영지로 가져왔다"고 적시돼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드리 일린 캐럴(30세), 재카리 애린 페이지(32세), 단테 가필드(24세), 티나 라이(41세)이다.

지난 11월, 용의자 중 한 명인, 캐럴은



미 연방정부 담당자가 용의자들 체포 당시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비밀 정보원에게 "미드나잇 선 작전"이라

미 연방수사국은 또한, 같은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뉴올리昂스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2025 샌안토니오 ‘예수 찬양제’ 성황리 개최

샌안토니오 지역 한인 교회들이 함께하는 2025 샌안토니오 예수 찬양제(United Christmas Festival of Praise)가 12월 14일(주일) 오후 6시, 샌안토니오 글로벌한인감리교회(담임목사 배 혁)에서 은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예수 찬양제는 샌안토니오 교회 협의회 주최로 열렸으며, 제일한인장로교, 한인침례교, 한인글로벌감리교, 새누리교회, 한마음침례교, 순복음 사랑의교회, 겨자씨감리교회, 형제침례교, 암마누엘나사렛교회, 한인은혜침례교회, 기쁨의장로교회, 웨로십큐뮤니티 교회 등 지역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예배는 백영진 목사(샌안토니오 교회 협의회 총무, 기쁨의 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인글로벌감리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여는 기도가 드려진 후, 성



예수 찬양제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도들은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를 찬양하며 성탄의 기쁨을 고백했다.

대표기도는 이윤영 목사(한인침례교 회)가 맡았으며, 성경 복동은 최은택 목사(웨로십큐뮤니티교회)가 누가복음 2장 10-11절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정종례 권사(한인글로벌감리교회)의 지휘와 하옥주 사모의 반주로 연합 성가대가 성탄 송가와 '영화롭도다'를 찬양해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날 설교는 장성진 목사(순복음 사랑의교회)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장 목사는 "성

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받는 시간"이라며, "예수 찬양제를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현금 시간에는 찬송 '저 들 밖에 한밤 중에'가 불려졌으며, 조유진 목사(한인은혜침례교회)가 봉헌 기도를 드렸다.

이어 제일한인장로교회 남성중창단이 특송 '사랑의 왕'을 찬양했고, 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축복의 찬양',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을 불러 연합과 축복의 의미를 더했다.

광고는 문영일 목사(암마누엘나사렛 교회)가 전했으며, 폐회 찬송으로는 '천사 찬송하기를'이 불려졌다. 예배는 정신 찬 목사(제일한인장로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조셉 리 기자

나침반교회 민경업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예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모토로 하는 나침반교회가 오는 28일 민경업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린다.

민경업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고 오세준 목사를 만나 우정을 쌓았다. 이후 1999년 오 목사가 청년 시절 근무했던 기독교 출판사가 <종합 선교 나침반사>였기 때문.

1년도 되지 못해 별로 하나님의 부름

을 받게 되어, 그를 이어 나침반교회를 지난 27년간 섬겼다. 고인이 살아 있을 당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를 함께 논의했다는 민 목사는 어느날 고인이 “나침반교회”라는 이름을 전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 이유는, 민 목사가 청년 시절 근무했던 기독교 출판사가 <종합 선교 나침반사>였기 때문.

지난 2013년, 민 목사는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대 회장으로 섬겼으며, 국가기도의 날, 다민족연합기도 대회 등을 섬기며 교회 연합 사역 및 한인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탰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종천 목사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에서 수학했으며, 코로



나의 뉴송교회(Newsong church)를 섬겼다. 김민선 기자

플로리다주,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로 대중 기만”… 의료 단체 3곳 제소

제임스 유스마이어(James Uthmeier)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과 관련해 대중을 호도했다는 혐의로 3개 전문 의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장은 이들의 행위가 매우 “비도덕적”이라 비난하며, 의학적 효능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의 신체를 훼손하고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값비싼 수술과 약물을 팔도록 도왔다고 했다.

주 검찰은 이들 세 단체가 ‘플로리다주 기만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과 ‘플로리다주 조직범죄처벌법(RICO Act)’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유스마이어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들 단체는 어린이 대상 ‘성별 긍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과정은 사춘기 차단제로 시작해 이성 호르몬 투여로 진행되며, 결국에는 미성년자의 가슴과 생식기기를 절제하는 외과 수술로 이어진다.

검찰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성적 개입이 소아 성별 불쾌감을 실제로 완화해 준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자와 보험사, 규제 당국, 심지어 판사들까지 설득하기 위해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여 이러한 시술을 권장하는 ‘임상 지침’을 만들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26개 주와 1개 자치령이 어린이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 및 ‘신체 변형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수술적 개입만 금지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어떻게 시를 쓸 것인가?”

시인 소강석의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시 창작 안내서

운동주문학상, 천상병귀천문학대상,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한 소강석 시인의 체험적이고 독창적인 시 창작론이 담긴 이 책은 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은 시 쓰기를 위한 영혼의 지침서다.
소강석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의 비밀을 찾아낸 영성적 탐구서다.
열세 권의 시집을 출간한 소강석 시인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시의 안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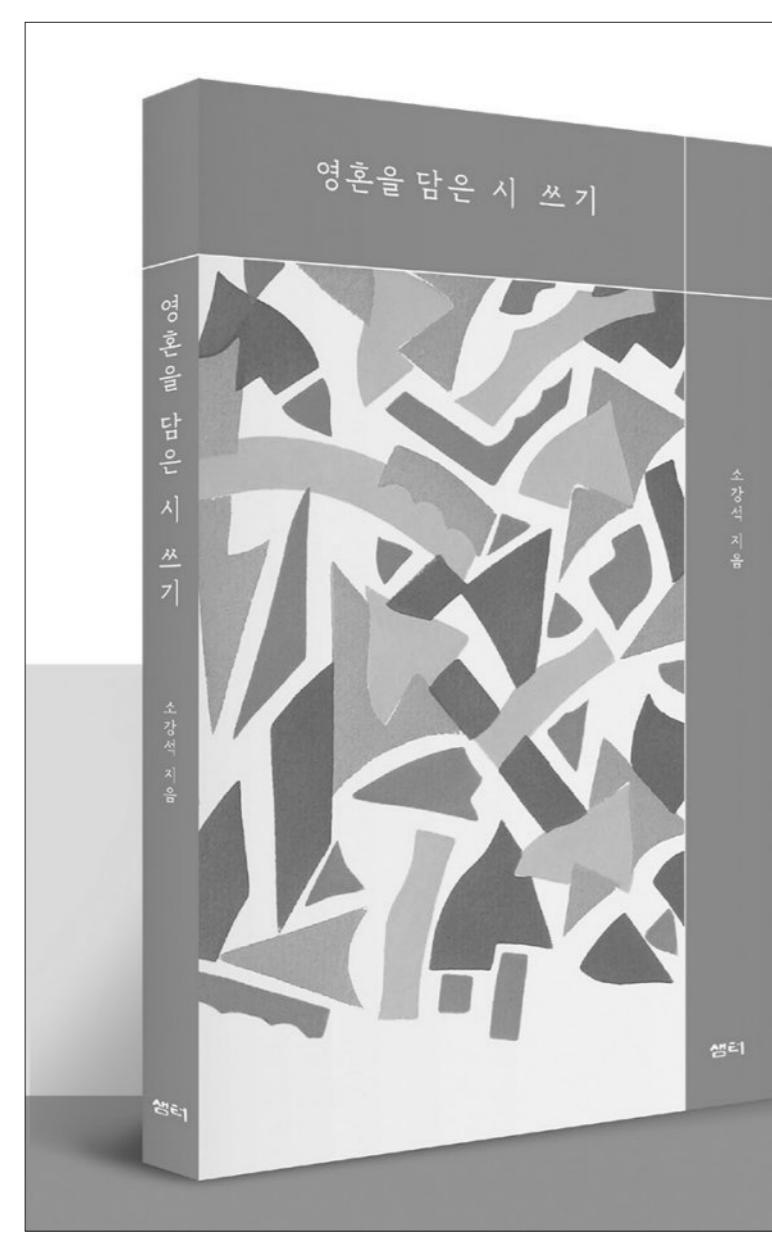
“종교적 상상력과 시적 감수성의 양자를 거칠듯처럼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체험적이고 실증적이며 그로 인해 감명 깊은 시 창작 방법론의 범례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김종희(문학평론가)



영혼을 담은 시 쓰기

소강석 지음 216쪽 17,000원



“중남미 선교 약진과 각국 자연재해 극복, 치안 안정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 선교 기도 제목

◇ 중남미와 아메리카반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교사 3만 4천 명에 달해

지난 4월에 남미의 파나마에서 개최되었던 ‘아메리카-아메리카 선교협력체’(COMIBAM) 선교대회를 통해 중남미와 아메리카반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교사의 통계가 발표됐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에서 총 3만 4,312 명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통계에서 확인된 2만 6,500명과 비교해 볼 때, 해마다 4.4%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와 아메리카반도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1997년까지 4,320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10,670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3만 명을 훌쩍 넘고 있다. 이 중에서 16,654명의 선교사는 자신의 모국에서 파송을 받았고, 17,346명은 국제 선교사로서 해외 단체나 기관을 통해 파송을 받았다. 대륙별로는 북미와 중남미에 걸쳐 24,507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유럽에 5,212명, 아시아에 2,315명, 아프리카에 1,870명, 오세아니아에 95명이 사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 문화적 기반이 유사한 토착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4,930 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선교사의 비율이 53.76%로 남성 선교사보다 7%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28.13%), 50대(19.22%), 20대(9.61%), 70대 이상(1.11%)으로 나타났다.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44.32%의 선교사들이 재정적인 후원이 불안정했고, 30%가 넘는 선교사들이 건강 관리나 응급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괴선교지에서 선교 파송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앞으로도 선교 동원, 훈련, 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중남미 선교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COMIBAM 2025 자료집)

◇ 브라질 도시 외곽의 빈곤층 찾아가는 목회, 개신교 성장 이끌고 있어

브라질 도시 외곽의 소규모 오순절 교회들은 대형 교회와 달리 빈곤층이 밀집한 지역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레우(Ilhéu)시 외곽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산토스(Anderson dos Santos) 목사는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

기고 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청소년을 모아 가며 청소년 예배를 이끈다. 주민들과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위험한 골목을 지나도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 교회는 주일학교, 주일예배, 가정예배, 노방전도 등 촘촘한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곳곳에서 수천 명을 모으는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브라질 전역에서 개신교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심에는 이처럼 교인 수가 50명 안팎의 소규모 교회가 많다. 브라질 신학자인 멜루(Tiago de Melo) 박사는 브라질 인구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 수준인 현실은 교회 운영의 모습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영업이나 노동 현장에서 일하며 현신적으로 교회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에 의해 브라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침례교 소속의 올리베이라(Davi de Oliveira) 목사도 오순절 교회가 지도자와 평신도 간의 거리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도록 돋는다고 평가한다. 2022년 브라질지리통계연구소(IBGE)의 조사에서, 10 세 이상 브라질 개신교인은 26.9%에 이르며, 전국에는 약 60만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부흥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기여하는 교회로 자리 잡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 아이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7,400건의 여성 대상 폭력 발생해

11월 20일,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뒤자릭(Stéphane Dujarric)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에서 여성 대상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이티에서는 총 7,400건 이상의 여성 대상 폭력이 신고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성폭력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약 3,700건)을 차지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 중 60% 이상이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는 피란민이라는 점과 지금까지 피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마을은 27개나 되고, 파손된 구조물과 산사태 잔해 500만 톤을 치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메이카침례교연합은 340개의 회교 교회들을 돌아보며 파손된 교회와 교인들의 기록을 수리하고, 현재 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아이티의 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이티에서는 총 7,400건 이상의 여성 대상 폭력이 신고되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7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wikimedia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마을. 11월 말 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1,100명이 사망했다. ©WION 유튜브 캡처

고 있는 여성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법률 지원, 안전한 공간 마련 등의 종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시급하다. 현재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녀와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월부터 9월까지 성범죄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32,000회 이상 진행됐고, 560명의 활동가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피해 여성들을 돋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아이티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티 당국뿐 아니라 해외 각국의 인도주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아이티의 치안 불안이 하루속히 해소되고,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적실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press.un.org)

◇ 자메이카 지역교회들, 허리케인 피해 복구 위해 힘 모으고 있어

자메이카침례교연합(JBU)이 자메이카 전역을 휩쓴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자메이카는 초강력 5 등급 허리케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자가 40명 발생했고, 이재민은 60만 명에 유판하고 있다. 또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마을은 27개나 되고, 파손된 구조물과 산사태 잔해 500만 톤을 치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메이카침례교연합은 340개의 회교 교회들을 돌아보며 파손된 교회와 교인들의 기록을 수리하고, 현재 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생필품 등

메이카는 전체 인구 280만 명 중 190만 명이 개신교 소속이다. 지금 자메이카 전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은 건물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파악하며 사역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다. 남부와 서부는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 최대 90%의 주민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연락이 두절된 지역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재난 직후 자메이카침례교연합 지도자들은 웨츠 앱(WhatsApp)과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사역자들이 가장 빠르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킹스턴(Kingston) 본부를 비롯해 세 곳의 교회가 기부 장소로 지정돼 모금과 구호 물품 배분을 조정하고 있다. 미국 남침례교 산하의 센드 릴리프(Send Relief)의 부대표인 코스(Jason Cox)도 현장을 방문해 식량, 물, 방수포 등 물품 지원과 함께 곳곳의 필요와 수요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이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힘을 보탰다. 허리케인 피해로 이재민이 된 수많은 자메이카 주민들이 지역 교회들과 여러 구호 단체들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등 홍수로 사망자 1천 명 넘어

11월 말, 아시아 전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약 1,100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약 355명이 사망했고, 태국에서도 최소 176명이 사망했다.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현재까지 50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까지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홍수로 인한 사망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

난 당국에 따르면,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사이클론 세나르(Senyar)로 인해 발생한 홍수로 수마트라섬 전역이 피해를 입어 약 1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3개 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이 여전히 통신이 차단되어 필수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 복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이클론 디트와(Ditwah)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3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DMC)는 2만 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되었고, 110만 명이 홍수와 산사태 피해를 본 상황이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다. 전국기독교복음주의연합(NCEASL)도 성명을 발표하고 긴급 홍수 구호 모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도록 힘을 보탰다. 허리케인 피해로 이재민이 된 수많은 자메이카 주민들이 지역 교회들과 여러 구호 단체들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bc.com, www.christiandaily.com)

◇ 홍콩, 2019년 이후로 5년 동안 출석 교인 약 27% 감소해

지난 3월에 발표된 2024년 홍콩 교회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대비 교회 출석 인구는 268,822명에서 197,93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5년 동안 26.4%

가 감소한 것으로 총 70,887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감소 요인으로는 이민자 증가, 온라인 참여, 고령층 사망 등으로 여겨진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세례자 수는 46,487 명이었는데, 이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81,004명,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62,400명보다 감소한 수치였다. 이로 보건대 전도 활동을 통한 새로운 신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례받은 신자의 유지율은 10%대로 낮았던 반면 이탈률은 2014년 27.2%, 2019년 34.1%, 2024년 27.4%로 나타났다. 이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더욱 우려스러웠다. 2019년 인구 조사에서 47,236명이었던 청소년 교인의 수는 2024년에 33,634명으로 나타나 28% 감소했고,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교인의 13.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콩의 교회의 수는 총 1,318개로, 2019년 1,305개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다. 홍콩교회개신운동의 사무총장인 레이(Nelson Leung) 목사는 2009년 이후로 홍콩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재점검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콩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자세와 역량들이 모아지고, 특별히 불안한 홍콩 사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출처 research.hkchurch.org, www.chinasource.org)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BPA
부산항만공사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 지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한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영찰스 3세 국왕 참석한 대림절 예배서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조명

최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대림절 예배가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날 예배에는 찰스 3세 국왕이 참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성공회 성당에서 열린 예배였지만 행사는 교단을 초월한 에큐메니컬 성격으로 진행됐다. 성공회가 가톨릭 기도가 함께 낭독됐으며, 정교회 인사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설교는 가톨릭의 티머시 래드클리프 주교경이 맡아,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예배에는 파키스탄 출신의 리브 카 네바수(25)도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네바수는 “기독교인 여성으로서 12세에 불과한 소녀들이 납치돼 강제 결혼과 개종을 당하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많은 이들이 성폭력을 겪고 일부는 벽돌 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약 1,000명의 소녀들이 납치돼 강제로 결혼과 개종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며, 힌두교 소녀들 역시 자주 표적이 되고 있다.

네바수는 또 2023년 파키스탄 자란 월라 지역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폭력 사태도 언급했다. 당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회 25곳과 기독교인 가정 80여 곳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단 하루 만에 25개의 교회가 훼손되고 불태워졌으며, 최대 2,000명이 불타는 집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며 “다음 날 현장을 찾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파키스탄 가톨릭의 인드리아스 레흐마트 주교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폭력 사태와 관련해 5,200명 이상이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고 380명 이상이 체포됐지만, 현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리브카 네바수와 영국 ACN 이사 캐롤라인 헐(Caroline Hull) 박사. ©ACN

레흐마트 주교는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에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 경찰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가해자가 처벌될 희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네바수는 이번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ACN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야 했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찰스 국왕 앞에서 이 증언을 할 수 있었던 점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고, 예배 후 국왕을 직접 만난 것은 큰 영광이었다”며 “박해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 국왕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월드비전, 허리케인 멜리사 피해 자메이카 어린이들에게 성탄 장난감 전달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World Vision)이 허리케인 멜리사로 큰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학용품을 나누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타 이후 장기적인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월드비전은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월드비전은 올해 초 허리케인 멜리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 서부 5개 교구(parish)를 중심으로 어린이 대상 장난감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비전 미 프로그램 디렉터 리드 슬래더리는 자메이카 하노버 교구 체스터 카슬에서 열린 배포 이후 CP와의 인터뷰에서, 허리케인 상륙 6주가 지난 현지 상황과 구호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 행사에는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Operation Blessing)도 함께 참여했다.

슬래더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드비전은 통조림 식품과 크래커, 정어리 등 5인 가족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상자를 제공해 왔다. 또 다른 구호단체 워터스텝(WaterStep)과 협력해 깨끗한 식수 공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용 소독을 위한 표백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슬래더리는 “6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며 “지역을 돌아보면 전력선이 끊어져 있고 전기가 없는 가정이 많다. 전력 복구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재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월드비전은 성탄절 지원 외에도 식수와 식량, 방수포, 발전기, 태양광 조명 등 비식량 물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기 대응 단계에서 교회들을 소통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타링크 장비와 발전기, 연료를 제공해 지역 간 연락과 필요 파악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장난감 배포는 월드비전이 지난 6주간 진행해 온 긴급 구호 활동의 일부다. 월

드비전은 통조림 식품과 크래커, 정어리 등 5인 가족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상자를 제공해 왔다. 또 다른 구호단체 워터스텝(WaterStep)과 협력해 깨끗한 식수 공급에도 힘쓰고 있으며, 가정용 소독을 위한 표백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월드비전은 미국에서 자메이카로 40피트 컨테이너 12개 이상과 수백 개의 팔레트 분량의 구호 물자를 보내왔으며, 장난감이 실린 컨테이너도 1.5개 분량을 전달했다. 장기적인 복구가 예상되는 만큼, 월드비전은 당분간 현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슬래더리는 “우리 팀은 올해 내내 현장에 머물며 활동할 것”이라며 “2026년에 접어들면서 재평가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최소 90일간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건을 포함한 추가 협력 가능성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허리케인 멜리사를 지난 20년간 월드비전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약 15차례의 폭풍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재해로 평가되며, 미국인들에게 자메이카 구호를 위한 후원을 호소했다. 이미경 기자

美기독교 기업 ‘하비 라비’, ‘더 케이스 포 크리스마스’ 50만 부 무료 배포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하비 라비(Hobby Lobby)가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신앙을 알리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리 스트로벨(Lee Strobel)의 저서 ‘더 케이스 포 크리스마스(The Case for Christmas)’ 50만 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작가 스트로벨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하비 라비가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 매장에서 내 책 ‘더 케이스 포 크리스마스’ 50만 부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이 책들을 사용해 사람들을 이끄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일 추가 게시글을 통해, 총 50만 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하비 라비 매장에서 무료 배포가 계속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더 케이스 포 크리스마스’는 스트로벨이 지난 9월 출간한 전면 개정증보판



미국 기독교기업 하비라비(Hobby Lobby) ©Flickr Creative Commons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믿음이란 마음 속으로 거짓임을 알면서도 믿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회고했다.

그는 아내가 이웃의 초청으로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예수의 부활을 반박해 아내를 ‘구해내겠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강력하게 가리키는 증거의 눈사태를 마주하고 보니, 무신론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스트로벨은 “하나님은 내 가치관과 인격, 도덕성, 세계관, 철학, 태도는 물론 결혼과 자녀 양육, 인간관계까지 변화시켰다”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 48개 주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 중인 하비 라비는 오랜 기간 기독교적 가치와 신앙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사명 선언문에서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주를 공경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정체성에 따라 하비 라비는 주일에 전 매장을 휴무한다.

하비 라비는 2014년 미 연방대법원의 ‘버웰 대 하비 라비(Burwell v. Hobby Lobby)’ 판결을 통해, 낙태 유발 약물을 포함한 의료보험 제공 의무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 30여 년간 성탄절과 부활절마다 미국 전역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며, 절기의 ‘의미’를 중언하는 사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성탄절 광고에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과 함께 “예수는 선물입니다(Jesus is the Gift)”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성탄 장면이 들어 있는 스노우볼을 바라보는 소녀의 이미지가 함께 사용됐다. 이미경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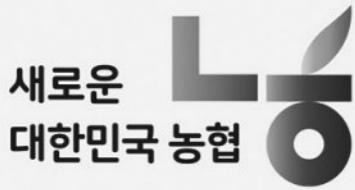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한국동서발전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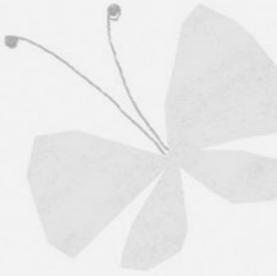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오늘,
아침밥 챙기셨나요?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단지 하루의 건강이 아니라
평생의 건강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농협

노동신문 개방 발언 논란… 정보 개방 명분 속 안보·체제 인식 논쟁 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열람 공감 발언 둘러싸고 여야 공방
북한의 일방적 정보 차단 현실 외면한 정책 인식이라는 비판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사이트의 개방 및 열람 주전에 공감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확산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접근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검토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안보 현실과 북한 체제의 특성을 외면한 위험한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논란은 19일 열린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언급 하며,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직접 확인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면 오히려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정보 차단 중심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보 선택권은 국민에게…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면한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 매체 개방이 안보의 후퇴가 아니라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에 대한 판단은 통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며, 이를 우려하는 시각은 대한민국 국민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과거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북한 방송 개방을 통해 체제 경쟁의 우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접근은 색깔론으로 물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념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 평화 전략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이고 차단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적성 선전 매체… 안보 방어선 허무는 발상”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제외동 포청)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박 대변인은 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적성 매체 접근 제한과 관련해 국민이 선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막아두는 것이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하며, 이는 북한의 정보전 현실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매체가 단순한 언론이 아니라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국내에 개방하자는 발상은 북한의 치밀한 심리전과 이적 행위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보호해온 최소한의 방어선을 스스로 허무한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적성 매체 접근 제한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안보 현실에 기초한 예방 조치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상호주의 없는 개방”…북한의 폐쇄적 정보 통제 현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보 접근 문제를 넘어 북한 체제와 정보 환경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외부 정보 전반에 대해 철저한 차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조차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주요 포털이나 언론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정보 유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북한의 선전 매체를 개방하는 것은 체제 경쟁이라는 명분과

달리 비대칭적 정보 환경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보수 전영 인사들은 북한이 여전히 정보 통제를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 개방을 평화나 신뢰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권 문제, 정보 차단 현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접근은 정책적 균형을 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이어지는 논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자주와 평화를 내세운 정책 기조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의 책무는 북한 선전 매체의 국내 유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주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며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방 격화… 신속 재판 명분 속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확산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강행 뜻 밝혀

삼권분립 붕괴 및 재판 개입 우려 논쟁 거세져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쟁의 핵심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을 압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책임은 사법부… 압법으로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부적절한 재판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며,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사법부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구연 재판부의 능장재판을 방지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과나 반성 없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은 것은 면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며, 예규 하나로는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며, 예규를 앞세워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 재판이 자연될수록 누가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미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 삼권분립 정면 위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위헌성 지적과 함께 정면 대응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법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사법부가 한법적 권한에 따라 스스로 내놓은 자구책이며,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과수라고 비하하고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표현을 쏟아낸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면, 특정 사건의 결과를 정치권의 의도에 맞게 유도하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압법으

로 통제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재판 과정과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신속성 공감하지만 해법은 입법 개입 아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권력분립의 근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이유로 입법부가 직접 재판부 설치에 나서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 사건마다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이 압법을 통한 재판부 강제 구성이라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내부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 절차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입법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법부가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부입법부 충돌, 헌법 질서 영향 주목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미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사법부 압박이자 재판 결과 개입 시도라는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이번 공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첫 대형 충돌이라는 점에서, 향후 권리기관 간 긴장 관계와 헌법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유죄에 국제사회 반발… 미국 “언론 자유 억압” 비판



홍콩 민주화 운동가

이자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78·사진) 빈과일

보 창업주가 홍콩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

죄 판단을 받자, 미국

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침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사

회 전반에서 비판적 언론과 시민사회 인

사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압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성

명을 내 지미 라이 창업주에 대한 유죄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려

는 인사들을 침해시키기 위한 법 집행이

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판결이 언론 활동

과 정치적 표현을 범죄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이 1984년 종영 공동선언을 통해 홍콩의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 시키며, 이러한 권리가 수호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미 라이 창업주가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사회 전반에서 비판적 언론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압박받고 있다

고, 외세 결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미 라이 창업주는 홍콩을 대표하는 반중 성향 언론으로 평가받아 온 빈과일보의 창업주로 해당 신문은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 2021년 6월 폐간됐다.

그는 영국 시민권자로, 별도의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2020년부터 구금 상태에 놓여 있으며 장기 수감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전언이 이어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Talk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파마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기준] 2023.01.25~2023.03.10 [사용대상]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준] [주]글로벌의학연구센터

‘온라인 차별금지법’ 논란됐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빈 자리가 남아 있다. ©뉴시스

방송법 개정안에선 ‘성평등·성다양성 존중’ 문구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별적 손해배상제가 한 걸음 더 전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나 개인이 악의적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라인 통제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불법 정보로 규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언론계는 권력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막을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낭용을 신속히 각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이 마련됐다.

또한 진평연과 동반연 등 시민사회가 지적해온 ‘인터넷에서의 차별금지법적 요소’ 논란과 관련해, 불법 정보 범위에 대한 조항 일부가 수정됐다. 기존 문구 끝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등이 삭제되면서,

동성애 비판 의견까지 불법 정보로 간주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 의석수가 우세해 통과 가능성성이 높다는 전망이 자비적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최종 표결은 본회의 상정 이후 하루가 지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심의 기준에서는 ‘성평등·성다양성 존중’ 문구가 삭제되고 기존의 ‘양성평등’ 표현이 유지됐다. 노형구 기자

온신학회, ‘온신학적 천년왕국론’과 ‘사후세계’ 논의 조명

제9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서 최태영·임순숙 박사 발제

온신학회(회장 최태영)가 최근 서울 광성교회에서 제9차 연구위원회 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날 ▲최태영 박사(온신학회 회장, 교회신학연구소 소장)가 ‘온신학적 천년왕국론’ ▲임순숙 박사(장신대)가 ‘브루스 그레이슨이 말하는 사후세계’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천년왕국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신학적 복주

최태영 박사는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로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 개혁교회의 주된 견해는 무천년설”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설명에 대해 한국의 다수 장로교 성도들은 의아함을 느낄 수 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 장로교 신자 상당수는 전천년설을 장로교의 공식 교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는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으로, 그동안 한국 장로교의 다수 목회자가 천년왕국에 관한 장로교 전통을 충분히 가르치거나 계승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 천년왕국론을 보완하는 온신학적 천년왕국론

그는 “한국교회의 종말론, 특히 천년왕국에 관한 이해는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영향 아래 전천년설이 폭넓게 지지를 받아온 흐름이 있었다”며 “그러나 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모두 각 이론이 전제하는 성경 해석과 신학적 구조 안에서 지지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년왕국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견해로 무천년설을 제시하며, 그중에서도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설’이 성경



최태영 박사(오른쪽)가 발제를 하고 있다. ©온신학회

본문에 가장 충실하다”며 “다만, 이 견해 역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온신학회에서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으며, 이를 천년왕국론에 적용할 경우 보다 온전한 교리적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바로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이라고 했다.

최 박사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대목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존재는 영혼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스리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왕 노릇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부활한 성도들이 땅에서 죄인을 다스린다는 전천년설의 주장이 신학적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의 세 가지 핵심

최 박사는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의 핵심 주장은 첫째, 천년왕국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다. 둘째,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죽을 때 부활한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신학적 진전을 이룬다”고 했다.

◆ ‘왕 노릇’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

그는 “무천년설 또는 하늘에서 실현되는 천년왕국설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질문은 ‘왕 노릇을 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점”이라며 “전천년설은 부활한 성도가 땅에서 죄인들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반면, 무천년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 때문에 다스림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요한계시록 기자 가 다스림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관심은 다스림의 대

임순숙 박사(오른쪽)가 발제를 하고 있다. ©온신학회

상이 아니라, 성도가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스리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왕 노릇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부활한 성도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존재는 영혼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온신학적 천년왕국론이 성장한 브루스 그레이슨

임순숙 박사는 “2021년에 발간된 브루스 그레이슨의 저서 ‘에프터 라이프’를 중심으로,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학의 사후세계 논의가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며 “에프터 라이프는 약 10,000여 명에 이르는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4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그레이슨은 버지니아대학교 정신과 명예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정신과학회 석학 회원으로 등록된 인물로서 정통 신경과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레이슨은 매우 엄격한 무신론적 입장에서 성장했으며, 그의 학문적 훈련과 연구 역시 전적으로 무신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기간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면서,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임 박사는 “성경에 근거할 때 사후세계의 존재는 분명하다”며 “그러나 무신론적 기준에서 성경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방향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고 했다.

적 과학이 지배적인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죽음 이후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사후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오래된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 일원론으로 이동한 현대 기독교 신학

그는 “많은 기독교 신학이 과학과의 대화 속에서 보다 진보적인 신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통적인 이원론적 성경 세계관에서 벗어나 일원론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신학의 토대로 삼아 왔다”며 “이는 기독교 신학이 물질주의적 과학과의 대화 과정에서, 과학이 제시하는 설명을 탄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원론적 전제에서 물러나 일원론적 전제로 이동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학문 간 대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학이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특수한 이론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 무신론적 과학을 포함한 타 학문의 내용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방향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 있다”며 “브루스 그레이슨과 같은 연구자들의 발견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 현재 기독교 신학, 세계관 재검토 필요

임 박사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과학적 발견들이 축적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 기독교 신학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현재 기독교 신학이 채택하고 있는 일원론적 세계관이 과연 정당한지, 다시 돌아보고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레이슨 교수가 정신이 단순한 뇌의 작동이 아님을 밝혀내려 한 이유는, 사후 의식과 사후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책의 제목이 ‘에프터 라이프’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레이슨의 연구가 책 전반에서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한발 물러선 결론을 제시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적 배경을 지닌 신경과학자가 사후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신경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정지동 기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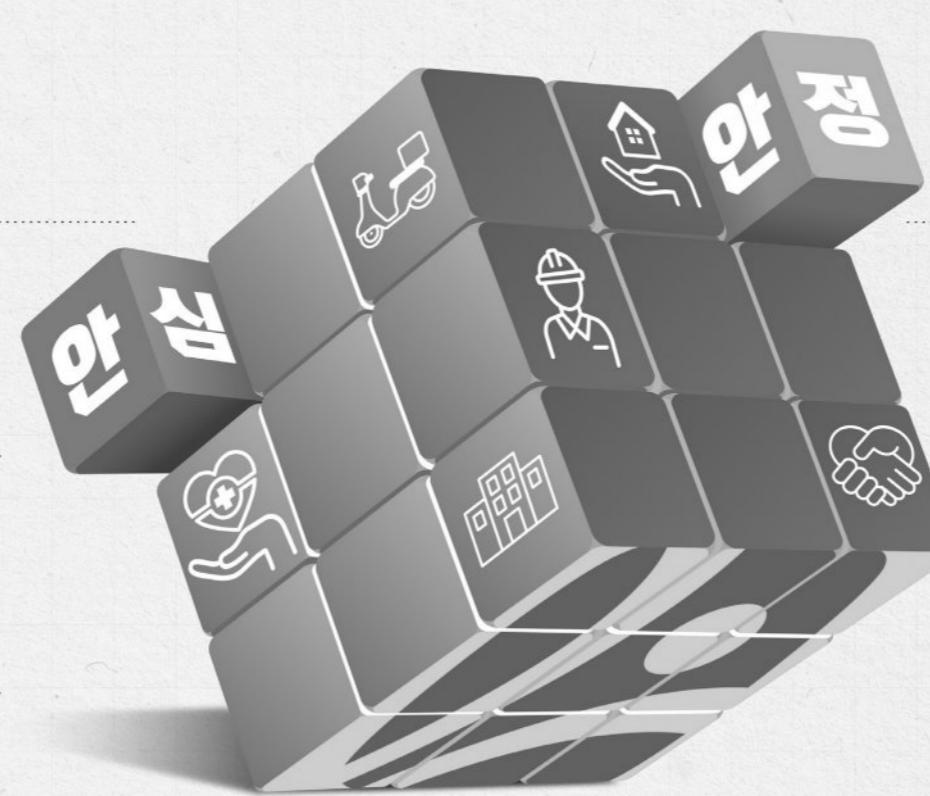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 행복수호천사 K-COMWELL

사무엘서 6. '빨짓에는 은혜 없다'



본문: 삼상 5:1-12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1981년의 미국 영화 『레이더스』(Raiders)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 영화계를 신선한 충격에 빼뜨린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인디아나 존스(Indiana Jones)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영화제목 '레이더스'는 원래 '침략자들'이라는 뜻이지만, 영화 포스터의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Raiders of the Lost Ark)라는 제목처럼 언약궤를 찾아나선 모험 판타지였다. 해리슨 포드라는 최고의 명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이 영화는 우리나라 TV에서도 여러 번 방영된 바 있다.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Ark of the Covenant)는 바벨론에 망할 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고, 고고학 교수인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그 언약궤를 찾아나선 것인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를 추적하던 독일군이 법궤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모래뿐이고, 거기서 무서운 천사들이 쏟아져 나와 이 신성한 궤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천사들이 궤를 지키듯이 본문에도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그 손이 노획(虜獲)한 언약궤를 갖다둔 블레셋의 도시마다 재앙이 임한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5장, 이 장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다.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 12번이나 나오는 이 단어는 4장부터 6장까지 세 장의 중심 단어이기도 하다. 이 언약궤와 관련된 블레셋의 입장장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겠다.

◆언약궤를 노획하다

두 번의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두며 언약궤까지 노획한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일찍부터 철기로 만든 무기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삼상 13:20, 21, 17:5-7).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당하고 언약궤를 노획물로 빼앗겼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은혜 상실이 원인이었지만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과 다고 신 때문에 승리한 것으로 칭찬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의 수도인 아스돗 다고 신전, 그것도 이스라엘의 신을 굽복시켰다는 승자(勝者)로(儀式)으로 다고 신상 바로 곁에 둔다. 마치 언약궤를 다고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희생물로 드린 모양새, 하나님을 포로로 결박하고 조롱하는 꼴이다. 물론 언약궤를 다고

신상 곁에 둔 것은 신(神)은 많을 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건 빨짓이었다.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범신론자(pantheist)들,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여긴다. 흔히 사람들은 모르고 한 행동은 '실수'라고 여기지만 아니다. 언약궤를 노획하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큰 짓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끔찍했다. 다고 신상이 무너져 파괴된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를 날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고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3절). 얼굴이 땅에 닿은 것은 복종의 자세, 다고가 하나님께 굽복한 모양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연한 사고'로 여겼다. 그래서 다고를 다시 일으켜 그 자리에 세운다.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본즉 다고가 여호와의 궤상으로 인해 진노한 것으로만 여긴 것

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고의 몸뚱이만 남았더라"(4절).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도 끊어졌다. 박살 난 셈이다. 신상의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신이라는 뜻이고, 두 손이 잘렸다는 것은 다고가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라는 뜻이다.

블레셋의 오픈을 보며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도 오픈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또 죄를 범하고도 실수로 여기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조심해야 한다. 블레셋처럼 흑혹한 대가를 치른 후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빨짓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빨짓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뒤늦게 후회한 블레셋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여호와의 손이 때렸다

사무엘상 5장의 또 하나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의 손'이다. 4번 나오는데 그 손이 '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손이 언약궤를 따라가며 언약궤를 두는 지역마다 초토화시킨다.

여호와의 손이 언약궤 옆의 다고 신상을 친 것은 물론 아스돗 전역을 독종(emerods)으로 쳤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러워 독한 종기의 자양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6절). 다고 신상을 섬기는 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때렸다'(smote)고 했다. 징벌하셨다는 말씀이다.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기드로 옮기기로 결의한다. 기드에는 다고 신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했지만 그 또한 빨짓이었다. 이스라엘의 신이 다고 신상으로 인해 진노한 것으로만 여긴 것

은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며, 언약궤를 노획물로 삼아 승리를 즐기고 싶어 하는 미련일 뿐이다.

여호와의 손은 가드에서도 움직인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자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9절).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했던 블레셋 방배들의 노력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그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블레셋 방배들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옮겨지자 에그론도 쓱대밭이 되었다. 그때 에그론 사람들의 반응이다.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10절),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을 보라. 빨짓하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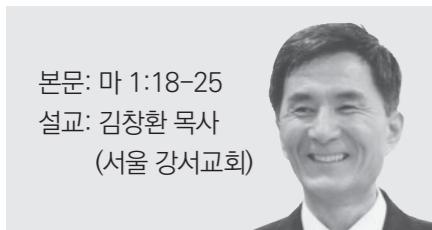
고, 남은 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배를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11절).

10절의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는 말씀과 11절 뒷부분의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고 한 말씀, 그리고 12절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한 말씀을 볼 때 언약궤를 노획한 그들의 빨짓은 죽음을 부른 짐작한 죄악이었다.

돌이켜보면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그곳에 내려지는 심판은 더 강해졌다. 아스돗과 가드에서는 사람들이 독종 재앙으로 인해 고통만 당했던 것에 비해 에그론에서는 독종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기까지 했다.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가져온 것이 화근이지만 어찌하든 노획물로 즐겨보려고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또 옮긴 그 고집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빨짓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게 블레셋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기가 다 도긴개긴이다. 블레셋처럼 당해야 정신을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도 독종이 돌자 언약궤를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마저 난리가 나자 블레셋 방배들은 금기야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의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본문: 마 1:18-25
설교: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 태었더니"(마 1:18)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가장 기쁜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와 시공 속에 뛰어드신 사건이다. 그러면 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사람은 원래 애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으나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阱으로 지키게 되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다양한 형태로 점점 더 가까이 오시기 시작하셨다.

1.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창 12:1-2).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용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운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이름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매"(출 19:17-20).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두려움과 떨림(경외함)'으로 찾아오셨다.

2. 성막(성전)에 찾아오셨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마"(출 40:34).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 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다고

3.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심령을 통하여 찾아오셨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아"(히 1:1).

4. 결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1-23).

이+1억 dream ^{업도적}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2024년 1월 ~ 9월 누계)



고마워요
인천!!

인천평역시



이+집 dream
천원주택



시리즈
신청하기

하나님의 법과 가이사의 법(35)

서현제 박사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눅 10:36)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되물으신다. “네 생 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흔히 영적도덕적 교훈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법과 기독교 윤리의 경

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과 위험이 넘쳐난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돕다가 더 다치게 하면 책임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을 상담이 아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과 닮아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질문, 법의 안전지대를 찾으려는 질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냉혹하지만, 당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돕지 않았다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껌데기 율법의 구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관심’을 드러내 시며, 이웃 사랑을 법의 경계 밖으로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네 생 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흔히 영적도덕적 교훈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법과 기독교 윤리의 경

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과 위험이 넘쳐난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돕다가 더 다치게 하면 책임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제도는 “돕다가 더 다치게 하면 책임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을 상담이 아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과 닮아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질문, 법의 안전지대를 찾으려는 질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냉혹하지만, 당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돕지 않았다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껌데기 율법의 구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관심’을 드러내 시며, 이웃 사랑을 법의 경계 밖으로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네 생

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원은 ‘완벽한 처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보통의 주의로 할 수 있었는지 기준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민사책임의 문턱은 더 낮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응급성, 무상성, 선의, 상황의 급박성이 강하게 고려된다. 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돕다가 곧바로 범죄자 가 된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즉 Good Samaritan Law의 내용도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미국은 일반 시민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폭넓은 면책을 제공한다. “돕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 위험 없이 가능한 구조조차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묻는다. “왜 아무것도 하

지 않았는가?”

한국은 일반적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에 대한 포괄적 면책도 제공하지 않는다. “돕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도왔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가장 소극적인 구조다. 이는 질서를 중시하는 법문화의 선택이지만, 자발적인 이웃 사랑을 제도적으로 북돋우는 데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되던 1990년대, 대형 재난과 사고를 겪은 2010년대마다 “사람들은 왜 돕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일반적인 Good Samaritan Law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책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고, 위험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웃이 되기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는 국가의 입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다.

국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강제할 수 없다. 법은 사랑을 명령하지 못한다. 다만 사랑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법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가이사의 법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이야말로, 교회가 설 자리이다.

‘간신히’ 살기에서 ‘충만하게’ 살기

이경애 원장

목회상담전문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아마도 ‘구원’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고, 근래에는 몸과 정신의 구원을 포함하는 ‘전인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원은 좌와 죽음을 주관하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채 인생들을 향해 악하게 역사하는 세력으로부터 (엡 2:2), 완전하고 안정된 아버지의 나리로 믿음과 삶이 이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인에게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우선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좌와 사망으로부터 구출되어 생명과 삶이 연장되고 보호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신학자들이 언급한 소위 말하는 ‘소극적 구원’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축소 시킨 것이다. 소극적 구원이란 일반적으로 좌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 좌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입는 구원, 다

시 말하면 ‘칭의(稱義)’와 유사한 의미인 것이다. 이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지만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은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마이너스에서 제로에 이른, 다시 말해서 죽음의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영혼이 얼어붙어 기능할 수 없는 인생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열어붙은 마음이 녹고, 자신을 종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필수적인 시작점이 된다. 인생들에게 좌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듯이, 심리적 상태가 결핍 상태에서 기본적 충족 상태에 이르는 것은 성장 과정의 필수적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소위 소극적 구원에 이르렀다고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극적 구원’이 필요하다. ‘성화(聖化)’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이 적극적 구원은 단지 ‘결핍의 충족’에서 끝나지 않는 ‘성장을 향한 지향’을 의미한다. 우리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표현을 빌리면 제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신분 변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성스럽게 행하여 가는 일생의 삶의 과정 말이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의 자족이 아닌, 적극적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성장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을 원하고 상황의 개선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단지 문제 해결이 된 상태만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확인, 선한 존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적극적인 헌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거룩한 삶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기 할 뿐 아니라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요10장 10절). 간신히 겨우겨우 살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성장을 기다리는 이 때 여러 외적 내적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인간적 결핍을 보게 하고 이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은유적 표현을 빌리면 제로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신분 변화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정성스럽게 행하여 가는 일생의 삶의 과정 말이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의 자족이 아닌, 적극적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성장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2026년 교회학교 10가지 핵심 키워드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세워져야 한다.
2. 가정 연계 교육
(Family-Connected Education)
신앙 교육의 핵심 공간인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 제공을 통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
(Innovative Educational Content)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디어, 게임화, 토큰 등 학생들의 눈높이와 흥미를 충족시키는 참여형, 경험형 교육 콘텐츠로 전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8. 교회 리더십 투자
(Church Leadership Investment)
교회학교에 대한 재정, 시설, 인력, 훈련 지원 등 교회 리더십의 획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절실하다. 교사들의 강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9. AI 활용 복음화
(AI-Utilized Evangelism)
AI는 단순히 세속적인 기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교육자료 제작,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등 AI를 복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10. 관계 중심 공동체
(Relationship-Centered Community)
교회학교가 학생들이 환대받고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직소(直訴)”에서 배우는 직시(直視)의 지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작품은 우울하고 퇴폐적이라고 비판받지만,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다. 그의 작품 중 단편 “직소”는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직소”는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사람을 살려두어선 안 됩니다. 온 세상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다는 동시에 “그 사람은 저의 주님이며, 저는 그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격한 혐오 뒤에 왜곡된 집요한 사랑이 숨어 있다.

유다는 자신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다른 제자들은 탐욕적이고 가식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은 점차 분노로 발전하고, 이 모순

된 감정은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격렬해 진다. 예수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으나 사랑받지 못한 좌절이 분노를 낳았다. 작가는 유다의 악행에 숨은 동기가 좌절된 애정에 편 극단적 증오라고 풀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은 삼십을 받으며 자신을 조롱하듯 “그토록 업신여기던 돈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겁니다!”라는 말로 돈을 통해 혹은 돈을 위해 복수했다고 선언한다. 유다는 정말 돈에 눈이 멀었던 걸까?

“직소”에서 유다는, 자신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못했고, 다만 그의 아름다움과 간인함에 매혹되어 그를 따랐을 뿐이라고 고백한다. 믿음에 기반 되지 않은 채 예수를 따랐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 선택을 “그분의 뜻을 이해한 유일한 제자”로서의 행위라고 합리화한다. 그는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었지만 끝내 사랑과 이해를 받지 못한 절망에 사로잡혀 분노했다.

작가 다자이는 유다를 통해 죄의식과 집착, 인정 욕망과 자기혐오가 뒤파인 인간 내면의 오물을 보여준다. 처음엔 유다의 분노와 과장

이 불쾌하지만, 작품이 전개될수록 독자는 유다의 내면적 갈등에 스며든다. 다자이가 유다를 통해 독자들에게 유다 속에 숨겨진 우리 모습을 보게 한다. 물론 독자가 유다처럼 행동한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작자가 재해석한 유다 내면의 복잡성과 모순에서 우리 죄악을 직소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를 비난한다. 맘에 안 드는 이웃도 그렇게 비판한다. 하지만 유다를 ‘이야기 속 절대 악당’으로 밀어드는 순간, 교훈도 자기 발견도 함께 잊어버린다. 악인을 나와 동떨어진 존재로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결국 자신 안에 괴리를 풀고 있는 연약함과 악함에 눈감는 것이다.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격렬히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한다.

“직소”는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라고 가르친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망치게 한다. 예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바탕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직소(直訴)에서 직시(直視)의 지혜를 배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권준 목사
시애들 형제교회

이번 주 형제와 나눌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 제가 교회 땅에 살면서 닭을 키우던 생각이 났습니다.

닭들이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 들으니 당연하겠지만 자꾸 옆집에 몰

려가서 그 땅을 헤집어 놓기도 하고, 또 길가까지 가서 지나가던 개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놀던지, 아니면 안전한 닭장에만 있으라고 해도, 어떻게든 나와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옆집 고양이에게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 제가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닭이 되어 그 닭들 가운데 살고, 그들의 먹이를 먹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자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으니 안전한 곳에 가서 있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닭들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은 감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닭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바로 신이 사람이 되는 것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며, 우리의 언어를 쓰시고, 우리가 거하는 장소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오늘 느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치르신 희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와 자는 예수님께서 그 큰 희생과 사랑을 베푸시며 구할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그 값을 치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는 예수님의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해 내신 귀한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형제를 축복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社 說

‘국가보안법’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여권이 또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안은 진보진영 침권 시마다 꺼내드는 단골 이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폐지를 반대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정원이 동의 시작 불과 나흘 만에 15만 5천 명을 넘겨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등 국민적 반발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무소속 의원까지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이 모여 빌의했다. 이들은 국보법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특별 형법에 속한다. 진보진영, 특히 종북 인사들은 이 법이 남북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줄곧 폐지를 추진해 왔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배경이 된 사건이 있다. 과거 북한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론할 당시 남한에 제시한 조건에 국보법 폐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주한미군 철수, 공산당 활동 합법화와 함께 국보법 폐지를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바로 국보법이란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국보법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 좌익 공산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내란과 폭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국민의 생존과 자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보낸 간첩이나 자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니 북한에겐 눈엣가시 같은 수밖에 없다.

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논리 중에 이 법이 77년 전 만들어진 케케묵은 과거 법이란 것도 있다. 시대정신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국보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이후 대폭 개정되었다. 변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거나 기입한 자, 이런 단체로부터 자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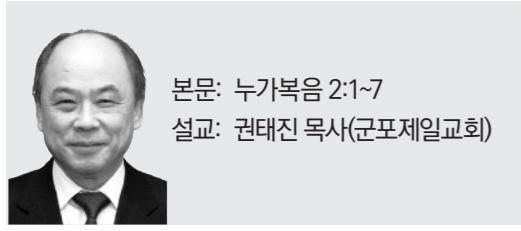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제7조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군부독재 시절엔 이 조항을 근거로 정권 비판을 못 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상해 이 법의 폐지에 목을 맨 건 아닐 것이다. 공무원의 개인 카톡을 검열하고 청소년의 SNS까지 금지시킬 것이다. 국보법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간첩이 암암하고 있는데 이 법을 폐지하자는 건 흥수가 범람하는데 둑을 허물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호전적이고 위험한 공산주의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안으로 핵무장을 강화하고 밖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간첩 공작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국가보안법이란 건 국민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법을 없애려 안달인 사람들이 나온다. 그들이 국민의 대표 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 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뿐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



본문: 누가복음 2:1-7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은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은 사명을 갖게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금이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눅1:76)

세례 요한의 탄생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4: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마7:12)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리”(눅1:78-79)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나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흐적하라 하였으니”(눅2:1)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흐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니”(눅2:4-5)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했으나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 왔고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와 같은 사상과 신앙이 되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룻1:16)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룻4:17)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태어난다고 예언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니라”(마5:2)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곳이라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가 흐적하러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태한 상태로 흐적하러 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흐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눅2:4-5)

요셉과 마리아는 흐적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곳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마 1:21-22)

성경 속에 보면 인간이 보는 환경과 하나님이 보시는 환경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아가 바다와 땅을 사이에 두고 바일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출14:1-3)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물이 넘치는 때였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케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케를 멘 제사장들의 밭이 물 가에 잠기자”(수3:15)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지를 했고, 어려울 때 건축하고, 어려울 때 부흥했습니다. 환경을 보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흐적하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마1:18-19)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약혼한 마리아의 임태는 용납할 수 없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1:20-21)

하나님이 요셉의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풀어주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1:24-25)

천사의 개입이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야 할 길로 갑니다. 그 길은 곧 불변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신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서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3.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뉏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리”(눅2:6-7)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하여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뉏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택한 백성의 기도 장소와 예배 장소를 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22:2)

한나의 기도 장소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산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1:10-11)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왕상8:33-34)

다니엘도 바벨론에 잡혀갔으나 마음은 성전에 있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가는 곳, 마음 두는 곳, 머무는 곳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1-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는 우주적이나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고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 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계신 곳, 천사들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함께 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아버지께로 올 길을 얻고, 불변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가장 행복한 한 해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병원 대신 동네에서”… 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관리 강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준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어르신의 신체·정신·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준 노쇠기능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올해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록 대상자 1만 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22.5%(3,175명)는 노쇠군, 51.5%(7,271명)는 전(前)노쇠군으로 분류돼 다수

의 어르신이 기능 저하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쇠인은 비노쇠노인에 비해 노쇠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쇠군 어르신은 비노쇠군에 비해 인지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 1.7배, 우울 증상은 약 3.4배, 낙상 경험은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쇠군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노쇠군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노쇠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활동 위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43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과 허약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8회)과 영양관리, 구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교육(6회),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주 3회)으로 구성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동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해 어르신이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전후로 만성질환 관리 상태, 악력, 보행·균형 능력 등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한 결과 평균 식후 혈당은 144.1mg/dl에서 134.1mg/dl로 낮아 정상 수준을 회복했고, 상대 악력은 37.28%에서 39.85%로 향상됐다. 보행·균형 기능 역시 9.53초에서 7.99초로 개선되는 등 일상생활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의료·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르신을 ‘건강장수센터’로 연계해 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입원 위험을 낮추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다.

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병원·보건소·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서울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동주민센터 기반의 ‘노쇠 예방 관리’와 건강장수센터의 ‘퇴원환자 연계 지원’을 충실히 연결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생활권 기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회장 송찬영 대표 최동진
(본사) 기술연구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첨단산업1로 23(부곡동) 031-490-0800
(영남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85번길 55 051-973-8518

국내 가스감지기 NO.1

글로벌 선도기술로 미국,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 ▶ 10건의 특허
- ▶ 세계 최초 멀티 가스감지기 개발
- ▶ 산업용 안전 제품 인증서 500개 이상 보유



가스트론은 1992년 6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가스안전기기 전문제조업체입니다.

GASTRON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록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아/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은자 • 남녀 상관없이 사랑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아/토요반) 4학기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증퇴한 자는 편입 가능.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록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원/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주소: 충북 영동을 479-8외 1건.
 - 토지: 2,756m² (833.69평)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낙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36)

「바른예수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으로 청제 전부터 이미 계셨고, 청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당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2천년 동안 끊임없이 「높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돈을 사랑함이 믿으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부자에게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기난한 자에 주고 나를 죽으라」고 하였지요. 이 말씀들의 깊은 의미는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 재물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죽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물질풍요가 신앙의 척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종만하면 민사가 형통하게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신신앙, 기복신앙의 기저에는 「여호와신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여호와는 물질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기나단 망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곳에 간 유대민족은 살인, 암살, 질병, 강간, 전쟁, 굶주림 등 참혹한 일들만 겪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호와가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그와 같은 만행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은 예수의 교훈은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교회와 교인을 심령 속에 「여호와가 자리 잡고 있는 한」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 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아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현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1995. 9 개척
- 2000. 4 1차 성전건축
- 2008. 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신령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 3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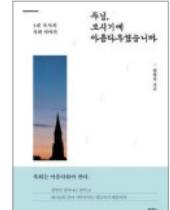
-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어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4대 목사의 목회 이야기

신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까'



35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온 김형천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신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까〉를 폈다. 책은 한 목회자의 회고록을 넘어, 오늘날 교회와 목회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신앙적 성찰이다. 다음 세대에 전하는 조용한 유산이다.

저자는 “목회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목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김 목사는 35년의

담임목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아름다움’을 제시하며, 이른 아침 풀잎의 이슬, 비 온 뒤 하늘의 무지개, 추수하는 농부의 땀방울처럼 목회 역시 그렇게 맑고 진실해야 한다고 고백한다.

책에는 목회 현장에서 교우들과 나눈 사랑의 기억들이 곳곳에 배어 있다. 이사 준비를 하며 정리한 수많은 네타이와 책에 담긴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네타이는 교우들이 건넨 사랑의 선물이었고, 책은 교우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 사랑이었다. 저자에게 목회는 결국 ‘받은 사랑과 나눈 사랑의 역사’였다.

또한 4대째 이어온 신앙의 가정사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간증은 책 전반에 진잔한 울림을 더한다. 교회는 자신을 키워 준 곳이자 사랑을 배운 자리이며, 그 사랑의 빛을 깊이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었다고 고백한다. 가정예배

때마다 드려 온 “대대로 주의 종의 가정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는, 공동체와 역사를 향한 책임의식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 본질적인 질문도 던진다. 교회 안에 과연 ‘천국의 기쁨’이 있는지, 생명 중심의 가치가 살아 있는지를 묻는다. 프로그램과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곧 구원받는 영혼과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인간적 조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랑의 메시지가 삶으로 이어질 때, 교회는 지역과 이웃 속에서 다시 신뢰를 얻게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습니까〉는 은퇴를 앞둔 한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책이다.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서로,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영적 에세이로 일한다.

최승연 기자

신간

영적 분별을 살다



현장 목회자이자 영성 신학자인 정재상 목사가 신간 〈영적 분별을 살다〉를 통해 영적 훈련과 모호함이 심화된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불어야 할 분별의 기준을 제시한다. 점진이나 역술인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은 상황을 문제의식으로 삼은 이 책은, 모든 성도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 성숙에 이르도록 돋는 데 목적을 둔다.

저자는 영적 분별을 특정 은사자에게 국한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영적 훈련으로 규정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토대로 영적 분별을 ‘하나님을 위한 영적 예배이자 약한 영의 유혹을 이기

는 방패’로 설명하며, 개인의 신앙을 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임 있는 선택의 과정으로 풀어낸다. 특히 자 유의지를 사용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일야말로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영적 분별을 살다〉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 영성사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로욜라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을 현대 개신교 신자의 일상 언어로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나시오 영성의 핵심 개념인 ‘영적 위안’과 ‘영적 황량’의 시기 중심으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영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를 성경 본문과 실제 목회 현장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주상적인 영성 개념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돋는다.

특히 책은 심리적으로 평온해 영적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도 선택을 내려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분별 방법을 제시한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제3자에게 조언하듯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후회 없는 선택인지 묻는 질문,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자신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결정인지 점검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라는 목회적 조언도 담겼다.

출간 전부터 학계와 목회 현장의 주목도 이어졌다. 유해룡 장로회신학대학 명예교수는 “성숙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극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평가했으며, 김기석 청파교회 원로목사는 “영적 훈련이 극심한 한국 교회에 선물과도 같은 책”이라고 추천했다.

최승연 기자

‘전문가 권위’가 만든 오판의 역사... 의학 통념을 다시 묻는 『의사에게 죽지 않는 법』



단 한 명의 주장으로 ‘계란은 콜레스테롤 위험 식품’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세 살 이전에는 아이에게 땅콩을 먹이지 말라는 미국소아과학회의 권고는 미국을 세계에서 땅콩 알레르기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돼온 이러한 지침들이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는지를 묻는 데서 『의사에게 죽지 않는 법』(웅진지식하우스)은 출발했다.

이 책은 ‘전문가’라는 권위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절대적 기준으로 고착시켜 온 의료계의 관행을 짚었다. 저자는 의료 현장에서 통념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며, 그 배경에 존재했던 구조적 문제와 판단 오류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무엇을 근거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질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유아에게 땅콩 섭취를 피하라는 오래된 권고안이 제시됐다. 이 지침은 충분한 검증 없이 영국에서 시행된 권고를 바탕으로 확산됐고, 많은 부모들은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이유로 이를 따랐다. 그러나 그 결과 땅콩 알레르기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면역학계에서는 조기 노출의 이점을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권고안을 만든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 분야 간 단절과 기준 기설을 고수하려는 관성이 국가적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마카리 박사는 이 책이 의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의 회복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과학적 절차에 대한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증거에 열린 태도, 기존 믿음을 수정하려는 용기,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현대 의료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우상학의 역사도 함께 조명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바림직한’ 인간형을 만든다는 명분 아래 강제 불임 정책이 시행됐고, 수많은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저자는 이를 의학의 가부장적 문화가 낳은 부끄러운 역사로 짚었다.

『의사에게 죽지 않는 법』은 과거의 오류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가 더 투명한 근거 위에서 작동하도록 요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과학적 검증 과정을 확인하려는 자세가 의료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책 전반에 담겼다.

최승연 기자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좋은 환경이, 근사한 웃이나 화려한 스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불들며 치열하게 살아낸 간증이 나를 보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회개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으로 연결되기에,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온 고난은 결코 재수가 없어서 온 저주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의 고난이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데는 다 구원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고난당해도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은 주님의 선물이요, 축복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 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그립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적으로 살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진정으로 남을 돋는 길은 나부터 빛지지 않는 겁니다. 나부터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김양재 목사의 잔소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그분과 토론합니다. 만약 이 여행을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나 우리의 인생과 안락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고 그분께 토로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근심을 펼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마음속에 오직 이 한 가지만을 넘겨 놓으십시오.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침입하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상상 속에서 아니라 ‘실제로’ 이 한계점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로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모든 맹세나 결심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실패 전나편에서 분명히 봅니다. 우리의 하늘에서 빛나는 유일한 별, 우리의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거룩한 종격 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으로는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한 번의 거룩한 만남 여부에 있습니다. 천국 서기관의 길은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그 은혜를 살아내며, 그 은혜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말씀의 문이 곧 천국의 문이며, 말씀을 들고 사는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사람을 금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격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품격이 다릅니다. 나의 격을 높이는 것은 영적 기도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사람의 격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는 영적 전투는 천선경기 아닙니다. 지면 자동으로 가는 진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를 목숨 걸고 살아야 합니다.

김용대 ‘거룩한 충격이 신앙인을 만든다’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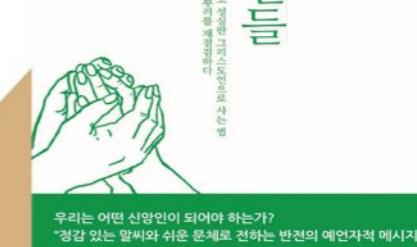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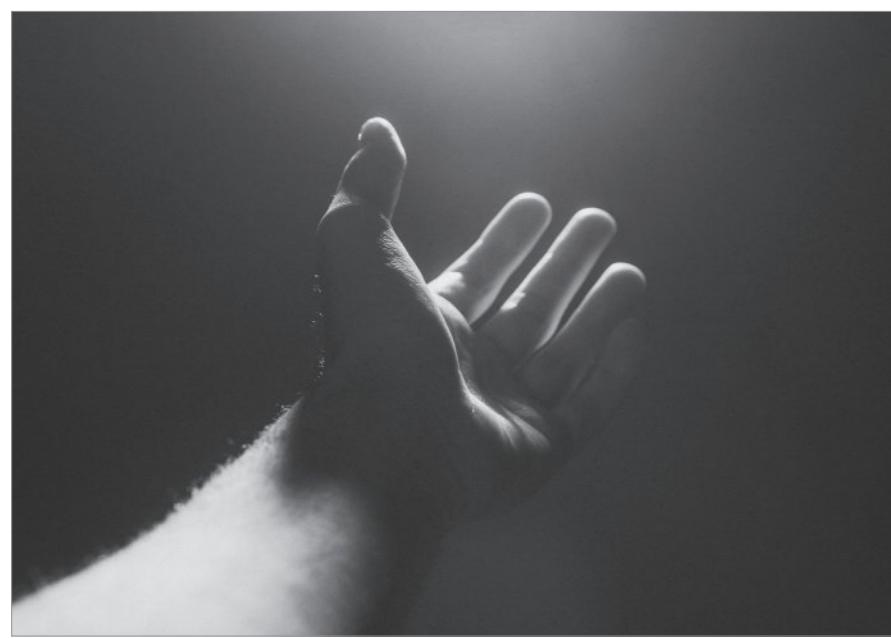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증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 넘치는도다

여기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섬리하시는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천국
을 갖고 계십니다. 이쪽 저울에는 그의 백
성들이 받을 시련을, 저쪽 저울에는 그들
이 받을 위로를 올려 놓으십니다. 시련의
저울이 비면 위로의 저울도 비게 됩니다.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햇빛이
비치면 그 빛이 더욱 환해 보입니다. 밤이
깊고 사나운 비바람이 계속 몰아칠 때는

천국의 대장되신 주님께서 배에 타고 있
는 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밥입니다.
가장 낙심될 때가 실은 성령의 위로를 가
장 많이 받을 때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
까? 웬지 아십니까? 시련이 위로받을 여
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큰 시련들을 통과해야 비로소 마음이
넓어집니다. 환난이라는 삶이 위로의 저
수지를 더욱 깊이 파놓아 위로받을 여지
를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이어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적
인 위로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만드십니다. 그러
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그만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수록 항상 더 많은 위
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위로
를 받기 위해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가장 행
복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하
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집 곳간이 가득 차 있

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이 잔뜩 들어 있으면 그렇게 많

이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호리병박들이 없어지
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
있던 우상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나면 여
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

었나이다.”

저 산 밑에서 외쳐대는 합성만큼 듣기
좋은 합성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시원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영혼 깊숙
한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만큼 진실
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데
려다주므로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집
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심
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
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 무거운 짐들
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예고하
는 전령들입니다.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새를 빙자한 **기독교 교회사 (13)**

제3장 최초의 교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교회는 에
덴산의 (에덴교회)였다. 성경은 하나님
께서 최초로 세우신 에덴교회의 설립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
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
기에 아름답고 멋기에 좋은 나무가 나
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
서부터 갈라져 네 균원이 되었으니 첫째
의 이름은 비순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운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
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
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헛데겔
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
은 유브라네다리(창 28:14).

‘창 28:14’에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
이 암시되어 있다. 에덴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로서 장차 계속
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
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체 교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상징하고 예표한다. 우
리는 에덴교회를 통하여 정립시켜주시
는 하나님의 기독교교회 전체에 대한
신학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교회의 수장

로마 가톨릭의 제45대 교황 레오1세
(Leo I, A.D. 440-461, 재위)는 ‘A.D. 445
년’ 로마제국 황제, 발렌티나누안 3세를 통
하여 교회의 수장을 교황이라고 선포하
였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 수장
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교회 수장에 대한 권
위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결정권
을 교황에게 일임하였고 교황의 의복을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의복과 같이 하였
으며 십지어는 ‘교황 무오설’ 교리를 만
들어 내어 교황의 말에는 일점의 오류
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
경은 교회의 수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도 한 분이며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를 수장으로 하는 지체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명령
한다(엡 1:22; 4:15; 5:23, 골 1:18; 2:10, 롬
8:28).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수장되
심은 창세전부터 신적 작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때부터 실현되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후 에덴교
회를 설립하셨을 때 에덴교회의 중심에
세워진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며 예표였다. 이 예표와 상징
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생
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을 통하여 입증되
어진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로 한 유기적 조직체계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생명의 원리)
로서 기독교의 근원이며 원리이고 또한
기독교의 오직 유일한 통치주이시며 관
리주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수
장되심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바 그것을 신학적, 역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류
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류에게 발생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로서 첫째는 매우 아름다운 사회(하나
님의 나라-천국-에덴교회)가 종료된 것
이며, 둘째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
계가 단절된 것이며, 셋째는 인류 역사
에 타락, 범죄, 무질서 등등이 도입된 것
이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
령이 가부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다. 이때
에 가부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신학적
으로 정립하면 ‘명령의 거부-공의의 상
실-무너진 주권’으로 연계되어진다. 따
라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문
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문제였다. 왜냐하면 인
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주이시기 때
문이었다.

인간인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
판과 형벌을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거부된 명령-상실된 공의-무너진 주권’
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

제였다. 왜냐하면 피조인 인간은 하나님
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
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인간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가 받은 형
벌로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발생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했
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로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문
제의 해결이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대속죄제를 치르셨
을 때 그 대속죄제 의식에는 두 가지 의
미가 있었다. 하나는 인류의 죄를 대속
하기 위한 예수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
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
스도(로고스)의 회복이었다.

이때에 예수의 죽음은 육체적(신체적)
죽음으로서 ‘형벌의 죽음’이며 그리스도
의 회복은 ‘로고스의 회복-하나님 공의
의 회복-하나님 주권의 회복’이었다. 그
리스도는 이때의 회복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
으며 기독교의 수장이 되신 것이다. 성
경은 이와 같은 역사적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
에서 역사하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
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

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밭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엡 1:20-22).

한편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은 인
류의 구원 문제를 동반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
명을 다시 찾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
하여 상대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 인간
들에게 더욱 깊은 배려와 애정을 쏟으신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재
건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를 진행시킬 종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각종 사명과 은사를 부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
여 회복된 인간의 사명을 진행시키기 위
한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세워진 것이
었다. 따라서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하
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 조직 체계를 이
루는 가운데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
광과 기뻐하심을 위한 사명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라(롬 8:28).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18:6 NIV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 will not be : 앞으로도 ~
하지 않을 것이다 (의자결심
을 나타냄)
- with : 함께, 곁에 있는
- afraid : 두려워하는, 겁내
는
- mere : 겨우 ~의, 한낱 ~에
불과한
- mortal : (특히) 아무 힘
없는 일반 보통 사람, 인간
- do (to someone) : (누군
가에게) 해를 가하다, 영향을
주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한낱 힘없는 인간들이
이 내게 무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신경신학편(11) 마음챙김명상의 4단계 훈련법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1단계: 준비와 안정(약 3분)

자, 이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로 명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달도록 자세를 잡아주세요. 척추를 곧게 세우되,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볍게 풀어줍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다면, 구션이나 방석을 활용해 몸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해보세요. 두 손은 무릎 위나 허벅지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부드럽게 눈을 감거나,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편하다면 시선을 바닥의 한 점에 고정합니다. 나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봅니다. 앉아 있는 자세를 통해 느껴지는 몸의 무게와 안정감을 잠시 느껴보세요. 의자나 바닥이 나를 편안하게 지지해 주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흘려보내기 위해 몇 차례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맑고 깨끗한 공기가 몸속 깊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입을 통해 깊게 '하아~하고 내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와 목의 뻣뻣함이 물처럼 스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주변의 근육까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편안한 표정을 지어보세요.

2단계: 호흡 알아차리기(약 6분)

이제 의식의 초점을 오직 나의 호흡에 맞춥니다. 호흡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저 바라봅니다.

숨이 코끝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는 숨이 조금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내쉬는 숨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세한 온도 차이를 알 아차립니다.

이제 주의를 가슴과 배 쪽으로 옮겨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드럽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그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손을 배 위에 살짝 올려놓고 이 움직임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의 리듬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명상을 하다 보면 '오늘은 뭘 할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와 같은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조용히 이름을 불여주고, 마치



명상은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돋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판단 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립니다.

주의가 계속해서 흐트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나의 의식을 다시 호흡의 여성으로 데려오는 연습을 합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단순한 움직임에 집중하며 마음의 중심을 찾아갑니다. (잠시 침묵)

3단계: 몸의 감각 알아차리기(약 5분)

이제 호흡에 머물렀던 주의를 조금 더 넓혀 몸 전체의 감각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의 한 부분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에 미세하게 느껴

지는 따뜻함이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압력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든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주의를 몸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동해 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종아리, 무릎, 그리고 허벅지까지 각 부분에서 느껴지는 무거움, 가벼움, 저릿함, 혹은 아무 느낌이 없는 그 모든 감각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이어서 영덩이가 닿아있는 의자나 바닥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단단함, 부드러움,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와 등, 어깨, 팔을 지나 손가락 끝까지, 마지막으로 얼굴 주변의 감각까지 섭세하게 느껴봅니다. 이마, 눈 주변, 볼, 턱의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하나의 온전한 감각 덩어리로 숨 쉬고 있음을 느껴보세요. 몸의 모든 세포가 조용히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적 고통은 원치 않는 생각이나 불안, 슬픔 등 감정을 회피, 억압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명상은 회피가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전제로 비판적 수용을 훈련합니다.

4단계: 마무리와 통합(약 2분)

이제 서서히 명상에서 깨어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의식을 서서히 외부로 돌려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가까이에서 들리는 소리 등 주변의 소리들을 분별 없이 그저 듣습니다. 앉아 있는 공간의 공기 흐름을 느껴보세요. 공기의 온도가 피부에 닿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꼼지락거리며 몸을 깨워줍니다.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팔다리를 스트레칭하여 굳어있었던 몸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미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건강상식

먹어도 좋은 곡식, 클렌징도 제격

토너, 아이크림, 에센스,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제 등 우리 나라 여성들이 바르는 기초 화장품 개수만도 4~5개가 넘는다고 한다.

과연 그렇게 많이 발라야 피부가 좋아질까.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No'다. 피부에 좋은 것을 더하기 전에 나쁜 것을 빼내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듯

피부가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클렌징이 중요하다.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카피 역시 이를 말해준다. 우리가 밥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곡식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클렌징 재료다.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가꾸어준다. 또한 콩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은 모공 속 노폐물을 피지를 제거해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준다.

울무는 단백질, 무기질, 필수아미노산 등이 풍부하여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여 노폐물 배출을 순조롭게 해준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거친 피부, 기미, 주근깨 등에 효과적이며,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다.

보리는 화장독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의 붉은 기운을 다스려 막힌 혈행을 풀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지 생성을 억제한다.

특히 모세혈관 팽창으로 양 볼이 붉은 색을 띠는 사람이 보릿가루 클렌징을 꾸준히 하면 깨끗하고 맑은 피부톤을 가질 수 있다.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밀가루로 씻으면 세제 없이도 잘 닦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밀가루는 세정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통밀 가루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면 노폐물이 잘 제거되고 미백효과가 있어 피부를 하얗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쌀겨에는 비타민A를 비롯해 철분, 인

동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행을 좋게 하여 혈색을 맑게 해준다. 또한 미백효과가 뛰어나 칙칙한 피부를 한층 맑게 해준다.

건강을 위해서는 백미보다 현미 섭취를 권장한다. 이는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소가 더 다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미는 피부에도 좋다. 현미의 다양한 영양소가 피부에 공급되어 피부가 윤택해질 뿐 아니라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 피부를 맑게 해준다.

녹두는 해독작용이 있어 피지와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여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다. 또한 녹두는 성질이 차서 열독을 풀어주고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를 윤기 있게 가꿔준다. 이러한 곡식 가루를 클렌징 로션이나 클렌징폼에 섞어 세안을 하거나 세안 후 팩을 해주면 된다. 꾸준히 해주면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여 생얼에도 자신 있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선물한 신비의 물질,
일라이트로 피부를 정화시켜주세요



SCIE급
논문 등재
성분 함유



2년 전통발효한
감발효 원액 함유



비건 VEGAN
인증 소재 함유



천혜의 광물,
일라이트 함유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신앙과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실패를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안일하게 두시지 않고 고난과 환난으로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 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 이니라”고 했습니다.

십일조 하다가 떠어먹어도 징계가 없고, 주일

안 지켜도 채찍이 없고, 별스런 죄를 다 지어도 하

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거나 구원 못 받았거나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 한 사람은 최후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으므로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때그때 때리 시고 깨달으면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욥기 5장 17-18절에 “불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

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굳세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은혜의샘물 십자가와 예수



마가복음 15장 1-47절

앞에서 ‘창조주와 신앙’, ‘구원과 신앙’, ‘교회와 신앙’, ‘고난과 신앙’ 그리고 ‘성령과 신앙’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십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십자가와 삶의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십자가와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십자가는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틀이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십자를 형틀로 사용한 이래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예수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처벌 방법이 되었다. 죄인의 몸을 십자가에 묶고 손과 발에 큰못을 박아 매다는 이 처형법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인들은 노예나 흉악범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전 유대인들은 헬라제국이나 로마제국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립 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죄 및 내란 음모죄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곤 했다. 예수께서도 부패한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성전을 정화시켜 보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성전 모독죄 및 반란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정죄 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까? 1968년 예루살렘의 기비트 하미브타르 밭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하단 벤하콜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매우 굽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 있는 발뒤꿈치 뼈도 있었다. 발뒤꿈치 뼈에 대장장이가 불에 달구워 망치로 두들겨 만든 굽고 기다란 쇠못이 박혀 있었다.

이 뼈에 불은 나뭇조각들을 살펴본 결과 끊어나거나 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끝의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려져 있었고, 십자가 자체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끊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나 나뭇조각이 죄수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부러진 정강이뼈도 있었다. 이 뼈

는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살아 있는 죄수를 절명시키기 위해서 큰 나무망치로 쳐서 부리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된 손과 손목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체중을 지탱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로 2천 년 전에 시행됐던 십자가 처형식을 재구성해 보겠다. 우선 죄수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 기둥의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몸은 기역 자 모양이 되고 죄수의 벗은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그 등을 향해서 로마 군인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철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기진할 때까지 때린다. 죄수의 몸에 채찍이 달을 때마다 피가 뿌리고 살점이 도려내진다. 이토록 체벌을 받은 후에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형장에 도착하면, 죄수가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힌다. 죄수의 두 발은 세로 기둥의 반침대에 올려지고 차렷 자세 모양으로 두 발을 모은다. 이때의 몸은 바로 눕힌 상태가 아니라 가로로 눕힌 상태가 된다.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 대못을 박는다. 굽고 유통불통한 대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눕힌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팔 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단한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맹렬한 밤에는 주위를 견디며,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반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내버려 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여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리뜨린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까?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체포된 예수에게는 신성모독죄, 성전 모독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국가 반란죄 등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만일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주변부 민중의 친구가 되며,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죄뿐이었다.

또한 예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처럼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구전법에 얕매이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셨다. 법 이전에 사랑을 실천하셨다. 안식일 법을 어길지도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 값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고

귀한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그분의 부활로써 입증되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오심으로 밝혀졌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 짐을 감당해 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신 은혜의 사건에 나타났다.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죄인인 우리 인간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힌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뜻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에 자기의 뜻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 하실 기약이 차 기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가

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의 장소로 생각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죽음을 결심하셨다. 예수는 성공한 갈릴리 지역과 그를 환영하고 인정해 준 민중을 떠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희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루기 위함이었다. 민중의 뜻은 예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궁전에 있었고, 민중의 마음은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있었다. 제자들은 보이는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다 목표를 세웠지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보다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큰 뜻을 품고 온몸으로 희생하셨을 때에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는 변하여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복된 삶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이천 년 전 예수께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려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성도를 유혹하는 자에게 음부의 문은 열려있다 '천재 음악가 파가니니'



이 시대에는 뜬소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부패한 속성의 질료를 가지고 있어서, 들은 소문에 나름 기를 좋아한다. 이런 유혹의 본능 때문에 소문의 당사자들은 큰 상처를 입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더구나 소문을 삽시간에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인터넷의 발달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시대 영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을 죽였다는 소문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 고통이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이런 잘못된 소문을 알고 살아가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죽은 이후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황당한 소문으로 죽어서까지 고통받아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ニ스트 '파가니니'(Nicolo Paganini, 1782~1840)이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량으로 노름을 좋아했고 악기를 악간 되었고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친시를 받았다. 그의 연주회는 표가 항상 매진 될 정도였다. 그는 도박에 빠져 수차례의 연주회 수입을 하룻밤에 날리기도 했고, 심지어 훌륭한 악기인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 바이올린을 도박판에서 날리기도 했다. 그렇게 연주회를 펑크 낸 상황에 마침 어느 부유한 프랑스 팬이 과르니에리(Guarneri) 바이올린을 빌려 주어 연주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었다. 또, 지나치게 뛰어난 연주실력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고약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파가니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과 친밀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파가니니가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여인을 향해 휘둘렀다. 그 일로 여인이 죽고, 그는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정식

버지의 바이올린이었다. 파가니니의 아버지는 아들이 바이올린에 소질을 보이자 매일 대여섯 시간씩 혹독하게 연습시켰다. 또한, 그를 제노바의 여러 음악가에게 보냈다. 그는 6개월만 지나면 선생을 능가하곤 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야심은 더욱 커갔다. 아들로 인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단순한 속물적 욕망 때문이었다. 파가니니는 당시 유행하는 프랑스식 연주 기법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연주 방법을 독학으로 고안해 냈다.

그는 결국 어린 나이에 연주자로 나서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친시를 받았다. 그의 연주회는 표가 항상 매진 될 정도였다. 그는 도박에 빠져 수차례의 연주회 수입을 하룻밤에 날리기도 했고, 심지어 훌륭한 악기인 안드레아 아마티(Andrea Amati) 바이올린을 도박판에서 날리기도 했다. 그렇게 연주회를 펑크 낸 상황에 마침 어느 부유한 프랑스 팬이 과르니에리(Guarneri) 바이올린을 빌려 주어 연주회를 예정대로 할 수 있었다. 또, 지나치게 뛰어난 연주실력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고약한 소문이 따라다녔다.

파가니니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인과 친밀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사랑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파가니니가 발작을 일으켰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여인을 향해 휘둘렀다. 그 일로 여인이 죽고, 그는 4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감옥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글을 쓰거나 읽으며 보낼 수 없었다. 어느 날 바이올린을 넣어 달라는 그의 요청이 허락되었고, 그는 감옥에서 4년 동안 바이올린을 끼고 자내면서 탁월한 연주법을 독학으로 익히게 되었다. 파가니니의 실력은 대단하여 바이올린 줄을 다 끊어버린 후 G 현 하나만 가지고 온갖 희한한 소리를 흉내 냈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청중들이 그의 연주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실신하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보통 사람의 연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을 흔들어 놓는 연주였기에 연주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미친 듯 무대로 뛰어 올라가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며 바이올린을 살살이 훑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람의 재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연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 피옴비노와 루카의 여군주 엘리자(Maria Anna Elisa Buonaparte, 1777~1820)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으로, 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훈절했다고 한다. 군주가 연주를 듣다가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꾸 훈절하는 것이 창피하여 나중에는 커튼 뒤에서 연주를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마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악귀가 떠나갔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연주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로부터 많은 음악적 영향을 받았던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는 1840년

파가니니의 추도사에서 "소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겼으며 그가 그토록 매혹적으로 켜던 네 번째 현은 바로 그가 제 손으로 교살한 애인의 장자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리스토조차도 파가니니의 신기에 까까운 연주가 악마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 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뿐인가? 그가 비엔나에서 연주한 후에 여자들은 너도나도 파가니니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 했고, 남자들은 바이올린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를 들었다. 단추나 지팡이, 담뱃갑, 약 상자 등에도 그의 초상이 새겨졌다. 한마디로 그는, 연주를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천재였다.

음악가 슈베르트는 그의 연주를 본 후, "저런 인물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탄복했다. 당시, 빈이나 베를린에서는 이탈리아 연주자들을 낚잡아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파가니니의 연주를 본 후에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연주회를 관람한 장면을 묘사한 화가는, 남자들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는 여자들을 가까스로 막아내는 모습을 그렸다. 당시 성악 아카데미의 교장은 연주를 본 후 친구 괴테(Goethe)『파우스트』의 저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이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은 비상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의 연주에 열광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악기를 다루는 다른 어떤 대가들도 도저히 그를 흉내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연주는 도도하기만 한 영국인들마저 열광하게 했다. 파가니니의 연주회는 풋값이 보통 연주자의 몇 배나 되는데도 항상 표가 매진되었다.

베를리오즈(Berlioz, 1803~1869)는 파가니니를 만난 후 이런 글을 썼다.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긴 머리에 뾰뚱한 듯한 눈빛, 폐하한 얼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재성에 사로잡힌 거인 중의 거인, 그의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그를 수전노라고 비난하였지만, 파가니니는 베를리오즈가 생활하고

로 시달릴 때 그 당시 천문학적 금액이었던 2만 프랑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가 과도하게 돈을 아끼 이유는 마흔 살에 둔 어린 아들 때문이었다.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순수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니스에서 후두 결핵으로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제는 향간의 소문에 따라 '그가 사탄과 결탁하였기에 그런 기막힌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믿어, 장례를 거절했다. 파가니니는 자신의 고향인 제노바에 묻히기를 소원한다고 유언하였으나 주교는 거절하였다. 그와 가까웠던 체슬레 백작은 '그를 오래전부터 알아왔으나 결코 비기독교적인 태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으나 소용없었다.

주교는 파가니니가 부자임을 알고는,

사탄의 도움으로 벌어들인 재산 일체를 교회에 헌납한다면 이를 참회의 표시로 인정하고 장례를 허락하겠다고 제의했다. 결국, 아들 아킬레(Achille)는 아버지가 연주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돈을 교회에 헌납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서 장례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1년 뒤 1876년, 파가니니가 죽은 지 36년 만에 결국 로마 당국으로부터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드디어 가톨릭의 전례에 따라 파가니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나마도 다른 신자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밤중에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조건이었다.

그와 함께 생전에 유럽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바로 그 바이올린은 현재 도리아 투르시 궁전(Palazzo Doria Tursi)에 보관되어 있다. 혹시 악기에 악마가 붙어 있다는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연주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닐지 궁금해진다. 그 귀한 악기는 박물관의 유리 상자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의심 어린 눈길을 견디어 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 이시대의 파가니니 같은 또 다른 천재가 나타나 200년이나 켜켜이 쌓인 면지를 훌훌 털어내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소망해 본다. 그가 작곡한 카프리스 24 번의 연주를 들으며 한 인생이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얼마나 힘들 아질 수 있는지 곱씹어본다.

한평우 목사(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

찬양 인도 시 어떤 멘트가 좋을까?

예배 인도자들은 종종 예배 인도 시 얼마나 멘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묻는다.



나는 찬양 사이에 멘트가 길어서 설교를 듣는 듯한 예배에도 참석해 봤고, 어떤 때에는 멘트 없이 찬양만으로 이루어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콘서트처럼 느껴지는 예배에도 참석해 봤다.

찬양 인도 시 도움이 될 만한 멘트에 관한 나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1.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라. 멘트가 찬양에 스며들도록 하라. 즉, 할 말이 있는 경우에만 말하라.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확성기

리를 변화시킨다.

3. 비록 우리가 무대(강대상)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지만, 우리가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회중과 소통할 때, 멘트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쓴 블로그 글을 최근에 읽은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점은 기쁨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기쁨과 열정으로 성도들을 맞이해야 한다. 블로그 글의 요점은 -예배 인

도자로서- 우리는 마이크의 힘에 넘어가는 것보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가 하는 멘트는 의미 있어야 하며,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합시다!"

◆Regi Stone

Experience Worship의 창립자인 Regi는 앨범제작 및 영적 모임에 이르는 다양한 예배자료를 꾸준하게 제작해왔다. 또한 Belden Street Music 의 소유자이자 발행인으로서 100곡 이상의 예배음악을 제작했다. Regi는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와 전국의 컨퍼런스 및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이다.

찬양 한 표준

나의 연약함 모두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 모두 아시는 주님
주님 나로 인해 매일 아파하시며
그분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나의 연약함, 진명환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원더걸스 출신 선예, 박진영 콘서트 관람 후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13살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진 신뢰의 인연, 무대 위 아티스트 박진영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가수 이자 프로듀서 박진영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선예는 최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진영의 단독 콘서트 'HAPPY HOUR'를 관람한 뒤 소감을 전하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연 속에서 느낀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담담하게 전했다.

◆콘서트 관람 후 전한 소회

선예는 글에서 박진영을 떠올릴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빼도 둔도 아무것도 없던 13살의 나를 믿고 연습생으로 뽑아주시고, 예전히 부족함 투성이었던 나를 믿어주시고 여자 걸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결혼식에서 축가까지 불러주신 참 좋은 어른"이라고 표현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데뷔 이후,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까지 함께해 준 박진영의 존재를 언급하며, 한 사람의 선택과 신뢰가 한 아티스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전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선예가 박진영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전했다. ©선예 인스타그램 캡처

◆연습생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

선예는 이번 콘서트에 대해서도 각별

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올해의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고 밝히며, 박진영의 무대를 직접 지켜본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가수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라고 덧붙이며, 오랜 시간 동안 대중과 호흡하며 무대에 서온 박진영의 음악적 행보와 에너지를 높이 평가했다.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

글의 말미에서 선예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응원의 말을 남겼다. 그는 "존경합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60살까지 춤추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6년 남았습니다"며 박진영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선후배이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공유해 온 관계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격려로 전해졌다.

한편 선예는 2007년 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해 '텔 미(Tell Me)', '쏘 핫(So Hot)', '노

바디(Nobody)'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

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3년 캐

나다 교포 출신 선교사와 결혼, 현재 슬

하에 세 딸을 두고 있다. 이후에도 다양

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자신만

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천 힙합 팀 HASHAV(하샤브)가 여섯 번째 싱글 'Apportioned It'을 발표했다. '하나님의 동체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결국

계획'이라는 뜻의 팀명처럼, 이번 신곡은 성경 예배에서 4장의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교회 공동체와 은혜의 본질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이번 작품에는 아티스트

ANAZAO(아나자오)와 ATTRACKTV(어트랙티비)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이번 싱글에서 ANAZAO는 메인 아티

스트로서 곡의 전반을 이끌었다. 보컬과 체의 실제적인 회복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차분하게 풀어내며 곡의 흐름을 마무리했다.

HASHAV는 성경 본문에 근거한 신학적 메시지를 현대적인 음악 언어로 구현하는 CCM 프로젝트 프로듀싱 팀으로,

곡의 후반부에는 ATTRACKTV가 참여해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뤘다. "우리

마리 되시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봐왔다"라는 가사는 교회의 마리가 그리스도이며, 공동

는 작품으로 소개됐다. 최승연 기자

광림교회, 성탄 기념 음악회 개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초청

서울 광림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적인 소년합창단을 초청해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한다. 교회는 22일 강남구 소재 광림교회 본당에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성탄 축

하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1907년 과 민속 합창곡,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보

설립된 프랑스 소년합창단으로, 빈소년 합창단과 킹스칼리지 합창단과 함께 세계

광림교회 관계자는 "성탄의 기쁨을 음악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새중앙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356회) 의지의 항복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 월드(52회) 30 TV강단 삼일(승태근)	10 강연소 통(41회) 목 통증 없이 살기
	6:00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0 힐링스토리 30 한복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권준)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639회) 5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영어자막)(5회)	00 생명의 양식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자영아)(363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회(98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13회)	
	7:00 00 CTS뉴스W(31회) 20 생명의 말씀 대구동부-박성순, 포도원을 지키라(아가 2:10-17) 50 생명의 말씀 필그림-김형석, 걸웃을 두고 주님께로(마가복음 10:46-52)	20 행복한 쉼터 이리산광(권오국)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김대성)	30분 휴먼네컷(58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69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8:00 20 [성탄특집] 내가 매일 기쁘게(3549회)	20 조정민 목사의 딥딥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한 (하태경)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323회)	00 하나님의 음성(114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05회) 고린도전서 17강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록(34회) 성경 속 질병 이야기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 (김학필)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 (이제일)	0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96회) 40 Q&A 107 소요리문답(7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회)	10 새롭게 하소서(11379회) 김도형, 장상우 대표	0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룩소 3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64회)
	10:00 00 오마이갓생(7회) 찬양 사역자 소영재 형제 편 2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나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	00 사랑의 꽃 필 때	20 THE NEW 하늘빛향기(10회)	00 파워인터뷰(206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7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미라클-특집 연말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1부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학성만나무료급식	00 비전설교 기나안(장경덕) 30 비전설교 베이직(조정민)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4회) 50 예수동행일기(16회)	20 세상을 보는 창(289회) 50 만나다(7회)	00 성지가 좋다(국내편47회) 서해의 끝에 세워진 복음기지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7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뉴스W(31회) 20 신앙에세이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잠 3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돌아갈 집이 있는가?	00 비정의 메시지 백승(이순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신용대)	1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2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109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익)	20 성경 속 전쟁사(2회) 아브라함의 전쟁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영 목사
오후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리글(264회) 30 구자역 목사의 트롯 친양교실(12회)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전당양) 30 행복한 쉼터 충일(복성현)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54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6회)	00 올포원(694회)	3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룩소 3
	14:00 00 [생방송]Calling GOD 50 원더풀우먼(11회) 나는 이렇게 이별의 슬픔을 이겨냈다?	00 성탄특집 GOODTV 스페셜 주님의 교회 음악극_하나님의 사랑, 프란시스 1부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전교회)(646회)	00 말씀의 힘 창일(이사마엘) 30 CBS 아카데미 1집(91회)	00 세이렌 강단 소강석 목사
	15:00 40 7000미라클-특집 연말특집 미라클 프로젝트 1부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궁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288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구)(4404회) 민수기 14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00 오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참아름다운(안병찬)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85회) 4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74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8회) 50 만나는 교회(29회)	00 내 삶의 행복(187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워십 이신사(남교산교회) - 생명의 빛 예수 50 신앙에세이 원보연 목사(거제 하늘빛힐링교회)	00 조정민 목사의 딥딥 10 허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 (조이엘)	30 2025 온누리 사랑축제 (지금 여기, 사도행전) - 주제강의(1회)	50 영훈의 양식_신위의마을(김영준)	00 강연소 통(41회) 목 통증 없이 살기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민, 끝까지 사랑하려면 (1) 30 위대한 유산(11회) 메리 스크랜튼	1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40 더 깊은 올림 해세드 워십	10 레디온(164회)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66회)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좋은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당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성탄특집] 뮤지컬 '예수 그리스도' 1부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 (김양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7회)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주님주님교회 장승권 목사	00 성지가 좋다(510회) 이집트 룩소 3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20 더워십 이재은(강릉반석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시다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비전설교 혜성(정명호) 40 김신우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톡톡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9회)	00 TV강단 순복음원당(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결(한기재)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저녁	21:00 0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30 말씀노트-말씀한장(4회) 시편 105편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SNS청년부-(55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05회) 고린도전서 17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43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65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집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2월 22일 30 고향의 힘 리턴즈_밀원정(17회) 50 예수동행일기(16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379회) 김도형, 장상우 대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언(507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99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9강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10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예수의 길을 닦이다	00 오 자유여	1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503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2월 22일 50 바이블 필름 <마태복음>(12회)	10 더 클링(164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35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말기는 시간(1691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비아초 위심 50 오정현 목사의 은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401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00 힐링스토리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5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저 새끼양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경옥 목사(또감사선교교회)(256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풍물회(14회) 50 성경풀팀 이것이 궁금하다(96회)	00 세이렌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나의 분깃 예수 그리스도 40 내가 매일 기쁘게(3548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벽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기독교)(216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56회)	00 CBS 이기데미 1집(191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6회)	00 만나 U(9회)
	2:00 30 사인사색 4인4색, 1+ALL의				

2 0 2 5 C H R I S T M A S C A M P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Light of the World

2025. 12.23(화) - 25(목)

OAPC

최재성 목사
밀알교회 담임목사강해주 목사
YEF Korea 대표장시몬 목사
새안교회 담임목사신진철 목사
부흥교회 담임목사신유정 목사
엘립스 대표김태한 목사
영도교회 담임목사정상우 목사
동산교회 담임목사이상기 목사
AM Korea 대표김찬우 목사
YD Korea 대표주빌리워십
Jubilee Worship

크리스마스 캠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교단 소속 교회들과 다양한 선교회 및 단체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그레이트커미션 선교대회에서 진행하는 초교파 크리스마스 수련 캠프입니다.

[등록방법]



- 홈페이지에서 등록
christmascamp.or.kr
- QR코드 이용한 등록

[문의/장소]



070-4200-7613
christmascamp.help@gmail.com
강원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6번길 55